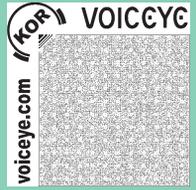


ISSN 2383-9872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5년 봄 · 여름



# 노들마라톤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2015년 5월 17일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 1000일

그림 지원 (카페 '그')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4 판사님, 난 수업해야 한단 말이에요.
- 07 네팔... 어떡하나... 네팔
- 12 [고병권의 비마이너] 불가능한 코끼리

## | 특집 | 2015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 16 [형님 한 말씀]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 17 83일간의 장례투쟁을 마무리하며
- 21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조용한 장애인인권 행진을 하다
- 24 행복을 꿈꿀 시간이 없던 현실 그로부터 1년
- 26 그렇게, 광화문농성은 1000일이 된다

- 30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 34 시장님~! 아니 과장님~? 밥과 교실이 필요해요
- 37 종로구청장님 바쁘시죠? 그런데 뭐하세요?
- 41 [대학로야 놀자] 시멘트 바르고 싶었던! ^^ 마로니에 공원
- 43 [나쁜 행복을 말하다] 귀신? 산 귀신?

- 45 평등을 격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노들야학으로
- 47 떼굴떼굴 굴러라 노들아~
- 48 [노들아 안녕] 주훈, 한준, 미진, 수연, 세준, 지윤, 원미, 경훈, 재범
- 54 [노들아 안녕] 이제는 휴직교사가 된 박준호
- 56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김철수 님
- 59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 제 104호 2015 · 5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간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영학 박세영 정민구 조아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승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63 [교단일기] 안녕! 노들 미술반
- 70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학교에서 만난 인권들
- 76 [노들은 사랑을 싣고] 화장의 근황
- 81 [노들 책꽂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 86 [동네 한 바퀴]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달
- 92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구화정 님
- 95 고마운 후원인들

## 노들바람을 여는 창



올해 4월 20일 아침 8시 40분 경 동대문 앞 횡단보도.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목에는 사다리를 걸고 온몸엔 쇠사슬을 두르고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외쳐댔습니다. 갑작스런 시위에 교통경찰은 잔뜩 난감해하며, 저 분들 좀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차들 좀 보세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꿈적도 않고 계속 구호를 외치는, 의지의 활동가들.

저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20일에도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다리와 쇠사슬을 건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2009년 4월 20일에도 비가 왔고, 차들의 뱅뱅 소리와 운전기사들의 욕설이 똑같이 퍼부어졌습니다. 억압의 계속, 투쟁의 반복, 산다는 건 이런 것일까 싶더군요.

5월 17일은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천막을 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한 지 천일이 되는 날입니다. 천일 동안 이 세상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의문스러운데, 우리가 맞이한 죽음들은 명확합니다. 광화문농성장엔 고 김주영 활동가를 시작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열한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매지 못한 죽음이 더 많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조용하기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 살던 지적장애인 이아무개 씨가 지난 1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 씨는 작년 12월 25일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이 씨가 왜 그렇게 죽어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의문사 역시 익숙합니다. 갇힌 공간에서, 세상에 없는 듯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잊힌 지 오래인 이들의 목숨, 스스로 큰 소리 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목숨은 잔인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반복된 죽음에 무뎠고,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들은 그만큼 아무렇지 않게 다뤄졌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죽음들 앞에서 더 요란해지고 싶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붙들여 매고, 이유 모르는 죽음에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길을 막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출근길 교통대란을 일으킨 중증장애인에 대한 손가락질의 수와 길이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이 사회와 권력의 무책임과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저항이 깊고 폭넓어질 것이다.”

- 끈질김의 대명사 박경석 교장샘

# 판사님, 난 수업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건의 중대함’... 빵살이 우여곡절

노들야학 승하

나는 ‘장애해방열사\_단’이라는 열사 추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장애해방열사, 그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이다. 때문에 송국현 동지를 비롯해 최근 김주영, 지영, 조성배, 김준혁 동지의 장례식에 함께해왔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4월 13일 야학 학생이던 송국현 동지가 집에 발생한 화재에 미처 대비하지 못 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4월 14일 우리 야학을 비롯한 100여 명의 동지들이 장애등급심사센터에 항의방문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모였다. 송국현 동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몇 차례 면담을 했었고, 그때마다 등급심사센터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에 동지들은 모두 분노했었다. 등급심사센터는 우리의 항의 방문에 대응해 경찰력을 동원해 우리를 멀리했고, 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분노에 휩싸여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난 이 외에 송국현 동지와 관련된,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에서 4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5건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가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마음을 놓고 있던 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질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필 작년 11월 28일 이덕인 열사 기일에. 일단 추모제는 치러야하기에 날짜를 미루고 12월 1일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재판장에 들어갔다.

## 사건의 중대함

재판장에 들어가니 검찰은 “사건의 중대함, 도주의 위험, 재범의 위험” 등의 이유로 나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구속영장을 보고서 사건의 중대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송국현 동지가 활동보조가 없어 화재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죽었던 이

사건은 그들이 나를 구속시킬 이유였던 ‘중대함’보다 훨씬 더 큰 ‘중대함’일 것이다. 20년 넘게 시설에 갇혀 살다가 자유를 얻은 지 고작 6개월, 송국현 동지가 꾸었던 자그마한 꿈들은 6개월 만에 산산이 조각나서 불에 타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의 중대함과 도주, 재범의 위험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이들을 지내고 12월 2일 구치소로 이송이 되는데, 몇몇 동지들이 힘내라고 남대문서에서 아침부터 날 기다리고 있었다. 힘내라고, 기죽지 말라는 동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운동할 때 그리고 면회하러 갈 때였다. 나는 행복하게도 매일같이 많은 동지들이 면회를 와 주셔서 매일 두 번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수형번호를 부여하는데, 맨 처음 내 수형은 네 자리의 숫자였다. 교도관이 내 번호를 부르며 면회를 하러 가려서 나갔는데, 내 번호를 아무리 찾아도 전광판에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공안사범이라고 교도소 측에서 수형을 바꿨던 것이다. 나중에는 109번이 내 수형이었는데, 공안사범은 대부분 세 자리의 숫자로 수형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 몇 번은 내가 면회할 방에 들어갔는데, 5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면회하는 자리에 남은 시간이 보이는데, 이 숫자가 내려갈수록 너무 초조해졌다. 왜 안 들어오냐고 교도관에게 따졌더니 월체어 동지들이 오셔서 면회하기 좋은 자리로 배치해줬다고 했다. 이렇게 월체어 동지들이 면회를

## 하루 두 번의 꿀 같은 바깥 공기

처음에 구속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루 한두 번 짧게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는데,



올 때마다 나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면회를 할 수 있었고, 면회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다. 10분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그것이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원동력이 되었다. 야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탄원서를 써주었다고 들었다. “박승하은 제(죄)가 없습니다.”, “박승하를 돌려(돌려)주세요.”라는 자필 탄원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 많은 동지들과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할 수 없었다.

### 땅바닥 동지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나는 구치소 안에서 ‘장애인 혼거방’에 있었는데 우리 사동 운동시간에 조덕배\* 씨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맨 처음엔 반말을 하며 뭐하다 들어왔는지 물어봤다. 짜증을 살짝 섞으면서 노들야학 교사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만날 때부터는 “박 선생님~”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박 선생 단체에 ‘땅바닥’이라는 단체 있지 않나?”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말하는 것이었다. 박장대소를 하며 “발바닥이라는 단체예요. 그 단체 알지요. 친해요.” 했다. 나중에 발바닥 동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니, 조덕배 씨 면회라도 한번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서로 웃곤 했다.

첫 심리 이후 바로 선고 공판 날짜가 잡혔는데, 두 번 다 나는 씩씩 빌고 반성했다. 반성한 결과 나오게 되었는데, 그날 너무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주어서 너무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출

소를 하는데 내 짐이 법원으로 도착하지 않아 아버지와 많은 친구들이 내 옷을 사러 다녔다. 법원 근처에 옷을 살 곳이 없어 결국 난 내 후배 바지와 남방을 입고 나오게 됐고, 그 친구가 집에 가야해서 다른 친구가 우여곡절 끝에 사온 수면바지를 입고 출소를 하게 되었다. 그 꼴이 얼마나 웃겼는지 사진 찍는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다들 웃었다.

노들야학 덕분에 수행생활을 잘 했고, 또 잘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노들야학 덕분에 내가 사는 의미와 내가 투쟁하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향소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침 그날이 내가 수업 하는 요일이다. 판사님, 날 구속시키지 마요. 난 수업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덕배 씨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같은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 네팔... 어떡하나... 네팔

최근 정

몇 해 전 노들야학에서 뭐든 함께하고 싶다며 찾아온 근정 쌤, 작년에 남편의 고향인 네팔로 가족 모두 이주했는데요. 4월말 네팔에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근정 쌤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답장이 왔습니다만, 네팔은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근정 쌤이 야학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네팔 소식을 전합니다. 네팔 구호 활동에 필요한 기금과 물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편지 하나.

오늘이 나흘째다.

오늘 낮에 또 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집에 잠시 들어갔던 사람들도 부리나케 천막으로 모여든다. 집 근처 공터에 천막을 치고 사흘밤을 잤다. 이틀째 밤에도 비가 내렸다. 청년들이 나서서 천막의 끈을 다시 메고 고인 비를 조심조심 쓸어내리며 천막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다. 천막이 찢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세월호 기사를 다시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 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왜 나는 책상 밑으로 들어갔을까? 나는 마우스를 잡았던 손을 쥘쥘하게 놓고 책상 밑으로 들

어갔던 거 같다. 갑자기 흔들렸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는 죽는구나 싶었다.

책상이 흔들렸고 천정이 곧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악을 쓰며 책상 밑에서 린, 린, 린, 린을 불렀다. 사월 이십오일 토요일 낮 열한시 오십분 경, 토요일 근무 담당이었던 나는 굿헨즈네팔 건물 사층 사무실 책상 밑에 혼자 숨어 온 건물이 흔들리는 바닥에 엎드려 ‘please’를 외쳤다.

린이가 똥이 마렵다고 했다. 이틀째 동네사람들이 백여 명이 머물고 있는 천막에서 조금 떨어진 모퉁이에 린이 바지를 벗겨 막 앉히려는 찰나, 천막에서 달려온 썬토스가 번개같이 린이를 낚아 채갔다. 썬토스는 독수리같이 빠르게 달려와 린이를 확 낚아채갔다.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바로 뛰었다. 첫날 지진만큼 큰 흔들림이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우리는 안심했다. 천막에 앉아 여진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 린에게 똥은 조금 있다 누자고 했더니 “엄마, 괜찮아.”라고 린이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 린은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린은 두 번이나 똥이 마렵다고 해 쪼그려 앉았는데, 도로 일어나고 말더니 세 번째 똥 누러 가야 비로소 똥을 누었다. 그날 밤 천막에서 잠든 린은 “엄마, 아찌 아요(똥 나와요).”라는 잠꼬대를 두 번이나 했다. 똥꼬를 막고 똥 나온다고 빨리 바지 벗겨 달라던 아이의 똥.

아이들은 천막에서 하나같이 잘 놀고 까분다. 삼일째 되던 어제는 축제처럼 사람들이 놀았다.

여진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햇빛은 나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은 정말 음산했다. 나는 가방을 메고 템푸를 타고 사무실로 나갔다. 10시 출근이었지만 11시에 출근했다. 짜간 상추를 싸먹고 세월호 기사를 좀 보고 있었다.

첫날 사람들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귀를 많이 끼었다. 냄새가 지독했다. 뒷날은 좀 정신을 차렸고 잠자리가 정렬되었고 셋째 날은 카드놀이를 하는 어른들, 저들끼리 몸을 굴리며 노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커젠이 어디 가서 사왔는지 신라면을 끓여왔다. 또 지진이 날까봐 뜨거운 라면 국물은 버리고 면만 조금 먹었다. 밤엔 코고는 어른들도 많았다.

아이가 있어서 걱정들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걱정을 견딜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잠을 잘 잤다. 어떤 아이도 투덜대거나 자리가 좁아 잠을 못 잔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씹 퍽 처, 써버이 퍽 처, 액땀 퍽 처가 전화를 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다. 다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사실 우리 동넨 정말 모든 게 괜찮았다. 참 온순한 네팔 사람들. 누구도 큰 소리 내어 불안을 말하지 않았고 선불리 낙관도 없이 그냥 ‘어 아요 아요 아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 온다 온다 온다’하면 다들 우우우 하다가 놀란 가슴을 조용히 쓸어내리곤 했다. 스무 번 이상은 그랬던 거 같다.

우리 동네에는 구호물품이란 건 없다. 곧 시장에서 야채를 못 살 거 같다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가게에서는 소금을 안 팔려 한다고 한다.

지진이 멈춘 느낌이 들었다. 사무실 천정이 무너지지 않고 멈춘 것이 정말 기적 같았지만 다시 또 흔들릴까 봐 무서웠다. 사층 사무실에서 무조건 뛰어 계단을 내려왔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우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뛰었다. 뛰고 있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큰 길로 나왔는데, 차가, 내가 타고 다니는 하늘색 마이크로 버스가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뛰었다. 갑자기 이 상황이 현실인지 무엇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영화 같았다. 무조건 뛰었다. 사람들도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뛰다 푸라노 바네수위로 가는 템푸를 탔으나 얼마 가지 못해 운전수는 차를 틀어야겠다며 우리 모두에게 내리라고 했다. 이미 길이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 중앙



에 모여 있거나 급하게 뛰고 있었다. 집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가 한 대 왔다. 푸라노 바네수위에 가자고 했더니 삼백루피 달라고 했다. 무조건 가자고 했다. 큰길로 가려는 기사에게 셋길로 가자고 했다. 큰길은 이미 막히고 있었다. 셋길로 접어들자마자 갑자기 또 흔들렸다. 나와 운전수가 동시에 내렸다.

길 아래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도 공터로 내려갔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른 때는 내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던 사람들이, 그날, 아무도 내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내가 먼저 물었다. “또 온대요?”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세 시간이 캄캄하게 흘러갔다. 그 사이 네 번 정도 흔들렸다. 아,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무서웠다.

네팔 통신은 두절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으나 받지 않았다. 지진에 대해 좀 더 알아둘 걸, 아니 안다 한들... 그때까지만 해도 박타푸르 집들이 무너지고 순다라 하얀 탑이 무너지고 신두발축이 무너진 줄은 난 몰랐다. 머리가 하얘져서 누구의 전화번호도 생각나지 않았다.

썬토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 시간을 헤맨 끝에 나를 찾아왔다. 썬토스를 보자 정말 안심이 되었다. 가족을 만나니 정말 거짓말처럼 안심이 되었다. 우리 썬토스는 그런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은...

사람들이 집 앞 공터에 다 모여 있었다. 커젠과

썬토스는 린을 감싸 안고 문을 붙잡고 있었다했다. 린은 아빠가 이렇게 자신을 안아 주었다며. 아빠랑 썬토스 삼촌이 '신은 없다'고 했다는 말을 이틀째 되던 날 했다. 그렇게 강한 사람처럼 보였던 썬토스는 지진이 멈추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랬구나 썬토스. 무서움을 무릅쓰고 한 시간이나 나를 찾아 헤맨 막내 썬토스.

세상의 그렇게 많은 불행이 나를 비켜갈 때마다 나는 안도했었다.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다. 본부에서 구호활동을 하라는 연락이 왔다. 이미 돈도 만달러를 보냈다고 했다. 근데 나는 지금 구호를 하러 갈 수가 없다. 혼자 사무실 사층에서 떨던 생각이 나서 아직은 길을 나설 수가 없다.

인터넷 연결이 될 때마다 사고 소식을 영상으로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천막에서 자는 것이 나을제인데, 아직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을제 계속 어머니와 아버지가 밥을 해 주시고 썬토스와 라진, 우리 아가씨 프라바도 따뜻한 물과 밥을 내게 준다. 나는 아직 엄두가 안 난다. 린을 돌보는 커젠은 내게 한국에 먼저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만, 여기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못할 거 같다.

네팔...어떡하나...네팔

### 편지 들.

성금을 보내고 싶다는 분들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노들 장애인야학에서 성금을 모아 주시겠다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커젠, 라진, 썬토스 삼 형제를 비롯해 청년들이 어젯밤 주머니를 털어 백만 원 정도를 만들었고 오늘 아침 몇몇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웨엄부나트 뒷동네로 갔습니다. 저희 동네 청년들도 구호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젯밤에도 천루피, 이천루피, 만루피까지 각자의 사정대로 모았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늘 홍차를 마십니다. 설탕을 담뿍 넣은 달콤한 찌아도 자주 마십니다. 홍차는 네팔 사람들에게 위안 같습니다. 쌀도 필요하고 물과 담요, 텐트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도움이 다 되겠지만 지금은 돈을 보내주시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바로바로 공급하는 게 제일 나을 듯합니다. 제가 보낸 내용들을 널리 퍼뜨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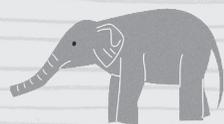
멀리서 기도해주셔서 고맙고... 이제야 더 실감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아, 네팔... 그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우리은행  
1002 441 933547  
최근정입니다.

[고병권의 비마이네]

## 불가능한 코끼리

노들야학 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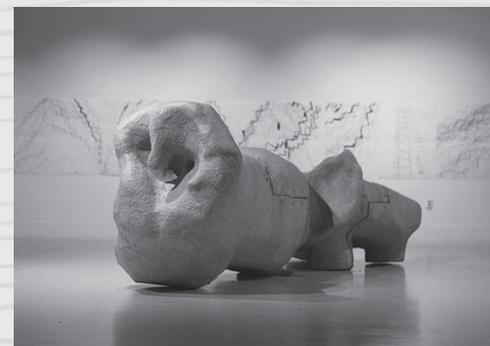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어느 것이 현실일까. 실감은 있는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코끼리인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감이 없는 코끼리인가.

지난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흥미로운 전시를 봤다. 본래는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판화전을 보러 갔던 것인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옆 전시실을 둘러보다 뜻밖의 황제를 한 셈이다. 전시실에는 여러 코끼리 조형물이 있었다. 전시실 입구에 '코끼리-주름을 펼치다'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있었기에 코끼리를 볼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작품들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코끼리인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코끼리들. 그것들을 보자마자 얼마나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는지 모른다.

그 코끼리들은 2009년부터 전국의 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아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각장애학생들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 작업한

것이다. 프로젝트 이름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짐작할 테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였다. 기획자의 말을 보니,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에 담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도전해 볼 요량이었던 것 같다. 여담이지만, 내가 관람한 날에는 '장님'이라는 말이 모두 흰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장님'이라는 말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한 모양이다. 하지만 새로 인쇄한 것도 아니고, 종잇조각을 오려붙여 딱 그 단어만을 가려 놓으니, 단어는 시각적으로만 보이지 않지 누구나 미루어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몇몇 관람객들은 퀴즈를 알아맞히듯 '장님'이라는 숨겨진 단어를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속담 속 편견에 도전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전시장에서는 속담 속의 단어 하나를 극복하기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어떻든 기획도 재밌고 작품들도 대단했다. 코끼리를 눈으로 본 것과 손으로 만진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편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어 보였다. 시각장애인들이 만든 작품들은 비시각장애인인 내가 보기에도 틀림없는 코끼리였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감각들은 어떤 면에서 모두 촉각이지 않은가. 시각도 기본적으로는 빛 알갱이들이 망막을 자극한 것이니, 시각을 통해 떠올린 이미지든 손으로 만진 후 떠올린 이미지든 모두 촉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둘의 차이가 너무 컸다. 전시장의 코끼리들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코끼리들이었다. 예컨대 박민경의 작품에서 코끼리의 코는 제 몸뚱이보다도 컸다. 한마디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코끼리였다. 내가 본 것과 다른 종류의 코끼리라는 뜻이 아니라, 저런 코끼리는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박민경(인천해광학교 초3), 「인천 코끼리」, 2009.

초등학교 3학년인 박민경은 코끼리를 만진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코끼리 코를 만지는데 손이 콧구멍 속으로 쑹~ 들어가 버렸어요. 무진장 컸고 그 속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 느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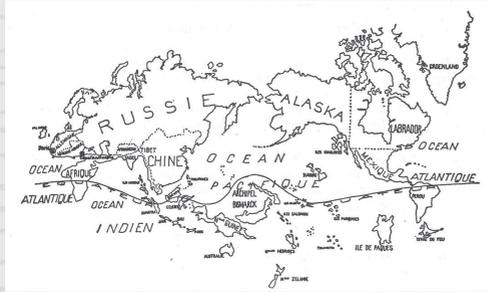
을 알 것 같다. 나 역시 비슷한 나이(아마도 5학년 때였던 것 같다)에 코끼리와 처음 대면했는데, 그날 밤 코끼리의 코가 한없이 길어져 도망치는 나를 붙잡고는 말아 올리는 꿈을 꾸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본 작품들은 그때의 내 꿈 속 코끼리를 닮았다.

방금 '꿈 속 코끼리'라고 했지만, 내가 시각장애인들이 엄연히 현실에서 감각한 코끼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내 꿈 속 코끼리는 낮에 보았던 코끼리의 어떤 실감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번 전시장의 작품들도 이런 종류의 실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동물도감 같은 데 실려 있는 코끼리 사진에서는 도무지 이런 실감이 안 난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코끼리에게는 실감이 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코끼리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어느 것이 현실일까. 실감은 있는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코끼리인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감이 없는 코끼리인가. 별 느낌도 없는 동물도감의 코끼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어느 날 코끼리와 마주쳤을 때, 그 코끼리는 박민경의 작품을 닮았을까, 동물도감 속 사진을 닮았을까. 어떤 것이 더 불가능한 현실일까.

전시장의 코끼리들을 보았을 때 내게 떠오른 작품이 하나 있었다. 초현실주의 작가 이브 탕기(Yves Tanguy)의 1929년 작품, 「초현실주의자의 세계지도」라는 그림이다. 이 지도에서는 미국이 안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은 꽤나 크게 그렸고, 남미와 아프리카는 너무 작게 그렸다. 중국 옆에 한반도가 작게 보이는데 일본 열도는 아예 없다. 유럽은 지도의 귀퉁이에 구별 없이 몰려있는데, 파리가 독일의 수도인 것처럼 되어 있고, 영국 쪽을 보면 아일랜드는 있는데

잉글랜드는 없다. 만약 작가 이름이 없고 전시장에 걸린 그림도 아니라면 무슨 초등학교 그림이려니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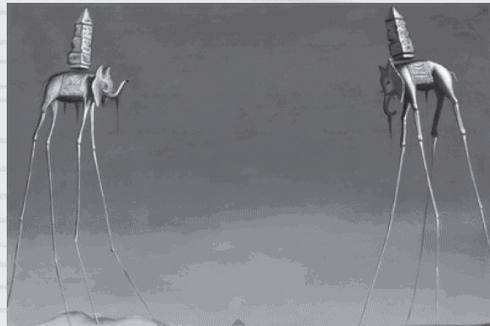
이브 탕기, 「초현실주의자의 세계지도」, 1929.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앞서 말한 코끼리의 냄새가 난다. 세계를 왜곡한 이 지도가 지리부도에서 보는 그런 세계지도보다 더 실감이 난다는 말이다. 보통의 세계지도에 그려진 세계는 우리가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만약 상당수 한국 사람의 실감을 반영한다면 미국은 보통의 세계 지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한국에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그리기 위해서는 태평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브 탕기의 그림처럼 매우 왜곡된 형태의 지도가 될 수밖에 없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이런 이상한 작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현실에서 가능한 코끼리는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코끼리아말로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무의식을 드러내는 온갖 기법들, 예컨대 간혹 눈을 감고 반수면 상태 혹은 몽환적 상태에서 만들어낸 작품과, 시각장애학생들이 포령한 의식 상태에서 자기 감각에 집중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닮았다는 건 흥미롭다.



윤준수(강원명진학교 초6), 「우주를 탐험하고 온 코끼리」, 2011.



살바도르 달리, Los Elefantes, 1948.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익숙한 일상의 삶을 지워내면서 도달한 세계가 장애학생들이 자기 일상을 드러내면서 도달한 세계와 비슷한 것은 왜일까. 이는 장애인들이 실감하는 일상적 현실이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만큼 비현실 내지 초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장애인들이 현실에 대한 상투적 묘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동물도감 속에나 있는 비현실적 코끼리를 자신이 체험하는 코끼리와 혼동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2015년 4월 20일

##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2009년 4월 20일



[형님 한 말씀]

### '최옥란 열사를 추모 하며...' -노들 병학-

2015년 4월 10일 박제에 최옥란 열사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최옥란 열사의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  
 단지 사진과 말로만 듣던 최옥란 열사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여성이면서,  
 아이의 엄마, 이렇게 삼중고로 살아온 최옥란 열사께서는 그야 평범  
 하게 살아오신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최옥란 열사 어렵게 했던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중증 장애  
 어를 가진 상태로 힘들게 살아 오신 최옥란 열사. 특히 2명지만 해도 주변  
 환경 여건들이 그야 좋지는 않았기에 어려움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하시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이 최옥란 열사를 절망케 했을 겁니다. 최옥란 열사  
 가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어떤 십여년이 지나 겨우 만 32살이 되던 제일 먼저 생쥐 드는  
 것은 최옥란 열사의 기원이며, 420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기원이면 수많은 이들  
 이 그녀를 추모 하고 있는 까닭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장애인들에게 앞장서  
 서 투쟁 해가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동지들은 그녀를 추모 하는 것만으로도 모른다. 최  
 옥란 열사 처럼 장애인들을 열심히 한 여에 많이 즐겼을 다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420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은 광화문 지하 보드에서 「장애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농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거의 3년이  
 되 가는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농성장에도 우리들과 함께 최옥란 열사도 함께 싸우고 계시거나 생각 합니다.  
 최옥란 열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열사분들도 우리들과 그 현장  
 에서 투쟁들을 벌이고 계십니다. 중증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사형  
 이 아닌 곳에서 이사회에서 양형하게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런 외침들이 들리는 곳마다 최옥란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들이 우리를  
 과 함께 투쟁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농성도 우리 힘모  
 아 투쟁하며 반드시 「장애등급제·부양 의무제」를 폐지 합니다. 「장애  
 는 반드시 승리 하리다.

## 83일간의 장례투쟁을 마무리하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조정미

올해 4월 20일은 지난해 12월 25일에 발생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에 대  
 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대책위 활동을 벌인 지 83  
 일 되는 날이자, 희생자 장례식이 진행된 날이다. 장  
 례 준비를 위해 단상에 어떤 물건을 놓을지 고민하  
 였다. 아버님께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과 물건  
 에 대해 여쭙보았고,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지만, 마  
 지막 가시는 길에 조금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길 바  
 라는 마음에 정성스레 준비하였다.

당일 단상에는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초콜릿 과자  
 와 요플레, 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고인을 위한 사  
 인펜 등을 준비해서 올렸다. 꽃다운 나이 27살, 마음  
 껏 펴보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죽어간 상황과 맞물  
 려 평안해 보이는 고인의 영정사진, 그와 함께 놓여  
 있는 물건들이 한 눈에 들어오니 마음이 아려왔다.

아직도 시설에서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하지 못하고... 그는 왜 먼저 떠나야 했을까? 그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83일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남은 일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편안히 쉬세요.

장례를 치르고 보니, 어느새 83일라니... 그동안의 장례투쟁 기억이 아득하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5년 초 겨울,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의 목소리. “얼마 전 티비에서 방송으로 나온 모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행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내용 보셨어요? 그 시설이 인천 소재래요.....”

2014년 12월 25일 인천의 한 시설에서 이용인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 갔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이 발생했다. 물론 이 사건은 TV 방송으로 나왔고, 나도 언론을 통해 보았다. 당시에는 “시설에서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가슴 아파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난다. 일상적

으로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스쳐지나간 일이었는데, 그날의 전화 한 통으로 비로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왔던 것 같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시설비리를, 그리고 거주시설 이용인들이 겪는 반인권적 삶의 모습을 보아왔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내 마음이 텅텅해진 것 같다.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에 비해서 반감된 느낌이었을까? 실제 악몽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 당사자들은 점점 선명해지는 고통과 마주하게 되지만, 반면에 그들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점점 둔감해진다.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어쩌나” 하며, 소리 없이 죽어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웠다. 그런 나에게 다가온 해바라기 대책위 활동, 무감각해진 내 일상에 균열을 내주었다. 굳건한 시설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균열을 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1 | 2 1. 인천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2월 2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2. 보건복지부는 즉각 진상규명에 책임 있게 나서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2월 17일 반포동 장관 집 앞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12월 25일 병원에 이송된 후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신 고인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들의 전신에 (입원 당시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피멍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했다.

도대체 어떻게 넘어져야 전신에 피멍이 들 수 있을까? 12월 25일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고인의 부상은 이날 처음이 아니었다. 여러 진료 기록들을 살펴봐도 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없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경막하 출혈<sup>1)</sup>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기록이 전무하다. 사망에 이르도록,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경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백번 양보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가정한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되어야 했을까? 시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시설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바쁘니, 복지부가 책임지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부분이었다. 처음 대책위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당시 복지부는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하고, 관할 군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 발 물러서기 바빴다. 그런데 이후 시설조사를 통해 작년 폭행으로 인한 추

1) 경막하 출혈 : 뇌를 둘러싼 경막 안에서 외부 충격 등으로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일어난 상태.

가 사망자가 확인됐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이 입건되었다.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조용히 지나갔을 것이다. 시설의 민낯을 또 한 번 보게 되었다.

##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이제 STOP!!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자해 혹은 남에게 해를 가할 때 생활교사가 폭력으로 제압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곳이다. 경막하 출혈이 발생해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는 곳, 생활교사들이 거주인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곳, 그곳이 바로 장애인거주시설이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설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고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해바라기 역시 지난해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로 조사됐었다.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가 무의미했다. 이것으로는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 한 건물에 수십 명이 같이 살게 하면서, 그들을 케어할 종사자 수도 적다. (그들의 노동환경 또한 문제가 많다.) 지역사회와는 떨어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한 시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죽어도 모르고 지나친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생각한다. 정부의 시설 수용 중심 장애인정책이 만  
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다. 장애인도 학대받지 않  
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기본적 인권이 있지만 대구  
모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학대와 관  
리 부실은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다.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는 시설 수용 중심 장애인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중  
심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장례일정은 끝났지만, 인천 해바라  
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원회는 앞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곳에 대한 시설폐  
쇄와 그곳에 계신 거주인분들에 대한 탈시설-자립  
생활 대책 마련 등 남은 과제를 위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연대를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투쟁!



##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조용한 장애인인권 행진을 하다

노들야학 경석

결코 시혜와  
동정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인권과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임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에 경북지역에서 장애아이 부모님들과 휠  
체어를 탄 장애인당사자가 노들야학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마침 종로구청 앞에서 예정돼 있던 투쟁  
과 서울시장실 견학을 함께하게 되었다. 노들야학  
에서 함께 장애인운동사에 대하여 공부하고, 노들  
야학이 있는 대학로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종로구청  
으로 이동했다.

경북에서 온 어머니들은 저상버스를 탄 것에 신  
기해했고, 서울 시민들의 태도에 무척 고무되어서  
내게 말을 전해왔다.

“대표님, 서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데예. 휠체어  
를 탄 장애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  
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이 신기한데예.  
^^”

경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지나가면 오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며 다양한 시선  
을 보낸다고 한다. 주로 대부분은 불쌍한 시선을 보  
내며 무척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것이다.

그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며 공감한다. 장애를 입고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시선 때문에 다시 방구석에 처박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코박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던 악몽이 살아있다. 그 시선은 내 온몸을 타고 기어 다니는 지렁이와 같다.

그러나 변했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변했고,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태도도 변했다. 경북에 사는 장애인 부모님들과 장애인 당사자의 말에 기반하면 적어도 서울은 변한 것 같다.

4월20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날'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호명하며 13년을 투쟁하고 있다.

'시혜와 동정'에 기반하여 그날 하루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생일맛이 느낌의 기념행사에, 권력자들의 '장애인을 위하여!'를 외치는 축하말씀을 들으면서 지내는 35년의 세월보다 적어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거리를 점거하고 투쟁했던 역사가 세상을 더욱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

지고, 저상버스가 다니고,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생겨났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물적 토대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근본적 변화는 바로 강하고, 빠르고, 힘센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 속도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 변화 속에는 '손상을 입어 이상하게 보이는, 장애인의 몸에 기어 다니는 지렁이와 같던 시선'의 자그마한 변화도 포함돼 있다.

### 2015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1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비가 오는 가운데 1박2일 투쟁을 결의하고 행사를 했다.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종로 보신각으로 향하는 일렬 행진을 시작했다.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중심부에서 월요일 출근시간에 일렬로 행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것이었다.

경찰들은 월요일 출근길 차량을 막는다고 난리를 치고, 길이 막힌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깨운다. 누군가는 그것을 불법, 시민 불



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행동을 이해 못 하겠다 한다.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는 조선을 부르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조용했다. 장애인들이 심각한 차별의 삶을 살아가며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시혜적이고 임시적인 구호와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나라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너무나 '조용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다.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일렬 행진은 월요일 출근길 시민에게 교통대란을 일으켰다. 조용한 행진이 아니라 너무나 짜증나고 혼란스런 행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저항의 행진이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교통대란이 아니라 세상의 속도를 막는 것이었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제외하고, 분리하고 그들끼리만 가버리는 세상의 속도를 막는 것이다.

출근길 교통대란을 일으킨 중증장애인에 대한 손가락질과 수와 길이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사회와 권력의 무책임과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저항이 깊고 폭넓어질 것이다. 그래야 수용시설에서, 집구석에서 자신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조용히 죽어가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을 방지하고 가버리는 사회와 권력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알아야 한다. 결코 시혜와 동정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인권과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까지 '조용한 장애인인권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 행복을 꿈꿀 시간이 없던 현실, 그로부터 1년 4월 17일, 송국현 동지 1주기를 보내며

노들야학 홍기

작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하루가 지난 오늘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국현 동지의 화재로 인한 죽음이 벌써 1년이 흘러갔네요.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사회에 나가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조금이라도 꿈꿀 시간이 없었던 그 현실에서 지금 친구가 없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활동보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지만 단 한 발자국도 피하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시설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 받을 수 없어 혼자 힘들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불이 나서 대피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날의 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송국현이 생기지 않도록 이 봄날, 뜨거운 투쟁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쟁합니다. 구호 같이 외칩시다. 낙인의 시슬,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



# 그렇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은 1000일이 된다.

노들야학 명희

언제부터인가 아침 6시에 바로 눈이 떠진다. 군대 갔다 온 동기가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라고 툭 치면 관등성명을 소리쳤다는데, 나는 일어나면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메신저방을 스윽 훑는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겠지. 하루 동안의 농성장 총화와 춤고 더움의 하소연부터 다양한 일상의 공유사항들이 오고간다. 10시 30분 정도가 되면 오늘의 농성장 사수조가 언제 왔는지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쨌는지 저쨌는지가 판가름 난다. 아, 오늘 농성장 빵꾸다. 오늘 사수하기로 한 서울장차연 단위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 찾아 삼만리 하거나, 서울장차연 사무국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등등. 사건에 대처하는 여러 매뉴얼이 펼쳐져있다. 아침에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일어난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농성장의 아침은 출근길 무심한 발걸음 소리처럼 시리기만 하다. 서명해달라는 말조차 전혀 나오지 않는다. 에스프레소도 단숨에 들이킬 만한 피로가 몰려왔을 텐데, 얼른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그 이후에 교대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낭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다. 누군가는 분명히 오겠지. 누군가 분명히 가게 되어있다. 그렇게 지낸 시간들이 1000일이 다 되어간다.

20살 대학을 가서 오래된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자주 갔을 때 그들의 신명과 의지가 존경스러웠다. 따뜻하지만은 않았을 그 시간 동안 상처받아 찢기고 상처 난 그 마음들을 추스르며 언제나 먼저 손 내밀어주던 사람들. 광화문에 누군가가 온다고 해도 오늘은 누가 가서 그들을 만나야 하나가 먼저 생각나는 일상의 피로감이 있다. 그럼에도 만나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 오길 잘했다. 이렇게 힘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26살의 내가 29살의 내가 되었다. 농성장만큼 나도 나이를 먹었다. 이 모든 울조림은 벌써 3살 된 광화문역사 지하 2층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의 이야기이다.

1000일의 시간 속에 주위의 환경도 바뀌어갔다. 태평로 대한문 한 쪽을 차지하고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없어지고 중구청이 대왕바가지만한 화분들을 얹어놓으면서 느닷없이 도심의 화단이 자리하고 있다. 꽃이 미워 보이긴 처음이었다. 작년엔 광화문광장에 식구가 생겼다. 가끔 농성장 정수기에 물이 떨어지면 새 물통을 꽃이놓고 가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다. 장소가 없거나 하면 지하 광화문농성장에 회의도 하러 오신다. LGU+ 노동자분들이 고공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태평로는 태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제 어느덧 광화문 지하역사 안에 있는 편의점 아주머니와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가끔 무언가를 빌리기도 선물하기도 하는 사이. 광화문 지하 1층 해치마당 상황실 아저씨들과는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추석, 설 명절 때는 음식도 나누어 먹는다. 광화문광장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도 몇 번 바뀌었다. 우리는 천막 위 커져이 쌓인 먼지만큼이나 그 자리 그대로에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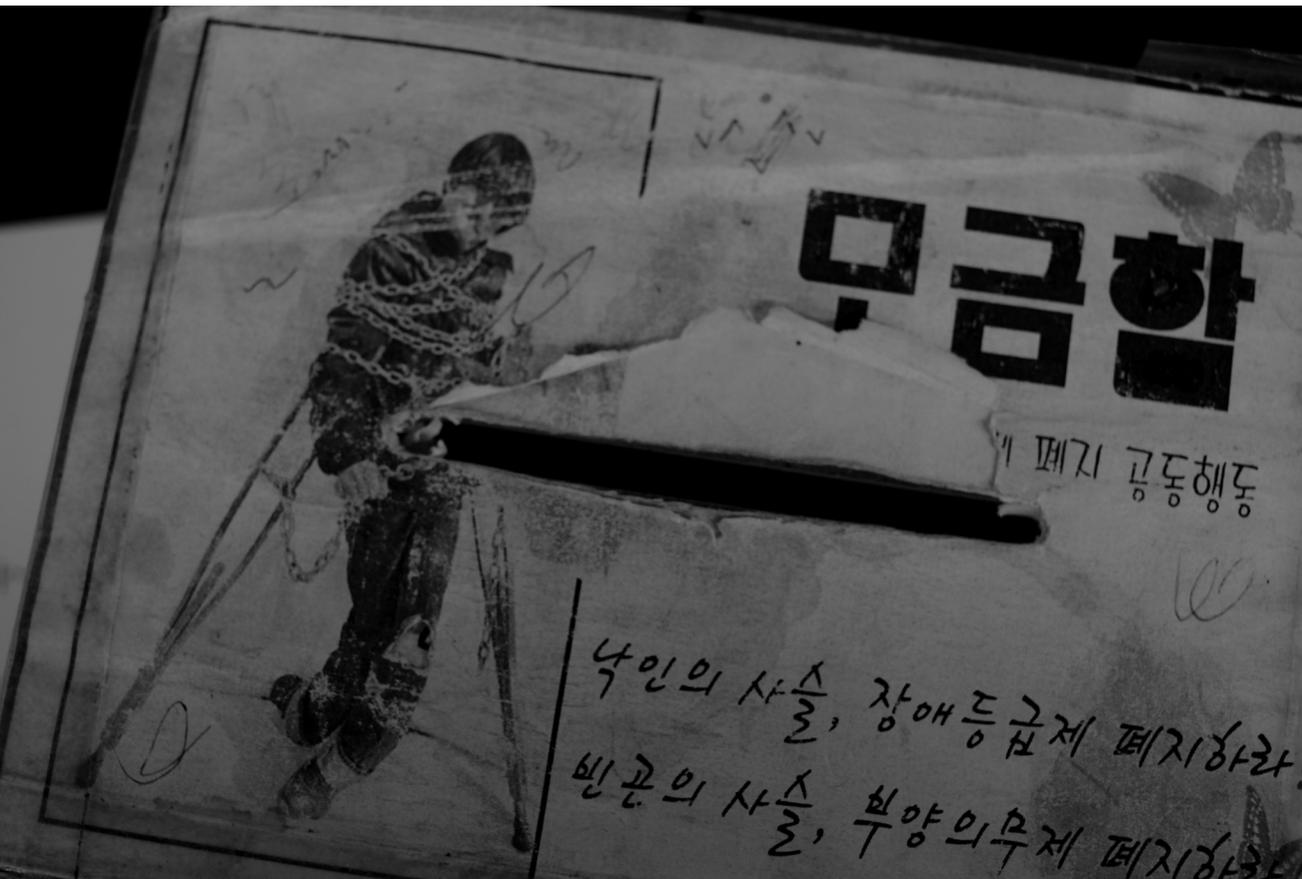
다. 함께 농성장을 차렸던 친구들 몇몇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 가끔 광화문농성장을 지켜보며 이곳이 사라지면 서울시는 얼른 커피숍이나 무언가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도 사라질 거다. 그 세상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 그렇게 일찍 떠나지 말았어야 할 11명의 친구들도 함께 웃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 외부의 사람이 되어 농성이었던 공간을 바라보고 있을 거다. 그때 나는 지금을 잘 기억하고 싶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살



기 위함으로 싸웠던 시간들을 말이다.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모두가 그때도 나와 함께하길, 그때도 역시 함께, 살기 위한 세상을 위해 싸웠으면 좋겠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한 광화문역사 2층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이 1000일이 된 시간 동안 점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숙이 새겨진다.

1000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3주년까지 95일 동안 더 끈질기게 이 광화문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면담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할 거다. 우린 더 싸울 거다.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힘 보태는 방법

- 1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이 더욱더 힘찬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 533301-01-088191 (조성남, 광화문공동행동)]

- 2 — 1000일부터 3주년까지의 일정에 힘 모아주세요.

-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전체회의\_부글부글 결심대회 TWO
  - 일시 : 5. 6(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
- 2) "95인의 그린라이트를 켜줘"농성 1000일 + 기자회견 (5.17(일) 농성 1000일 맞이)
  - ★ 그린라이트 : 투쟁의 직진 신호,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주자 스스로 도루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
  - 일시 : 5.18일(월)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3) 광화문농성 2주년 맞이 사진전
  - 시간, 장소 미정
- 4) 광화문농성 3주년 투쟁문화제
  - 일시 : 8. 21 즈음, 시간 미정
  - 장소 : 광화문농성장 또는 인근

#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2015. 4 윤길중



중증장애인들의 학교생활과 야외생활을 담아 2013년에 <노란들판의 꿈> 사진전을 열었다. 지난 전시가 장애인들의 피상적인 기록이었다면 장애인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장애인들의 가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떤 구조인지, 샤워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자는지, 집에 있을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며 사는지 궁금한 게 한 둘이 아니었다.

가재도구를 배경으로 포트레이트 촬영을 했다. 장애인들을 촬영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장애인 맘에 드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긴장하면 몸이 더 뒤틀리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하고 촬영 중에도 끊임없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떠들어대야 한다. 그래도 맘에 드는 사진이 안 나오면 세 번 네 번 집으로 찾아가야 했다.

손발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손발을 찍고 싶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많이 망설였다. 상처도 많고 뒤틀어진 손발을 찍으려고 하는 내 안의 '나쁜' 심보를 자책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을 손발이다.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소중한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더 절실하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이성에 대한 욕망이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 차이는 그들도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차별은 다수자의 횡포이다. 그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해졌으면 한다. 내가 늘 그들 곁에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이유다.





노들 후원인인 윤길중 님은 올해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민청에서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 시장님~! 아니 과장님~? 밥과 교실이 필요해요 노들야학~ 서울시장실 견학하다

노들야학 유미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최유리입니다. 노들야학의 교실 공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금 노들야학이 있는 장소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려고 교실로 이동할 때 휠체어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휠체어 2대가 서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니기 빠듯합니다. 수업받는 교실도 학생들이 공간이 좁아서 더운 여름에도 다닥다닥 붙어서 수업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고 편한 장소들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저희 학생들이 맘 편하게, 더 넓고 편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들장애인야학 최유리 올림

4월 14일, 노들야학은 현장학습 차원에서 서울시장실을 견학했다. 엄청 자주 데모해 재기는 우리를 정말 받아줄 것인가, 살짝 들떠서 서울시청을 향했다. 이렇게 착한 견학생이 되어 관청을 방문해보기도 오랜만이다. 야학 학생들과 활동보조인, 교사까지 못해도 6~70이 되는 인원이 시장실에 만원 버스 타듯 줄줄이 구겨져 들어갔다. 그 와중에 내가 목격한 소동이 있었다. 미\*언니는 박원순 시장님의 환영을 받으며 활짝 웃으며 시장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박원순 시장의 발을 밟고 만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탄 육중한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시장의 발 위를 넘어간 것. 반가운 마음에 송 들어가다 생긴 일이었지만, 박 시장은 “어어어, 괜찮습니다.” 했지만, 밟혀본 나는 안다. “... ..”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분명 널찍하던 시장실이 어느새 짝 차서 옆 사람 협조 없이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

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의 방문으로 단방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교실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자센터처럼 독립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당도 있고요.” 기회를 틈 타 나도 한마디 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야학 다니는 이준수입니다. 저는 집안 환경 어려워서 급식을 못 먹어줍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제공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 이준수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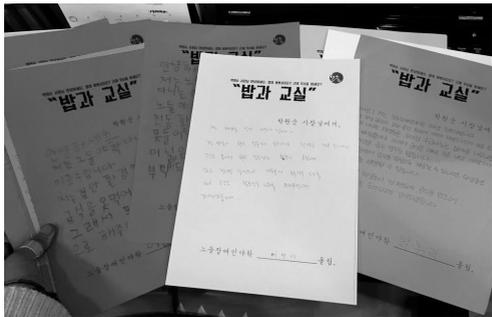
학생들이 이렇게 오타 내며 쓴 글을 맞춤법에 맞게 바로 잡아 보여주는 게 좋은지 아닌지 나는 늘 헛갈린다. 위는 그냥 옮겼다. 작년에 정말 어렵게 시작한 급식. 적자+적자+적자... 적자 행진이었다. 이 적자 속에서도 야학은 올해 밥값을 1000원 낮춰 2000원으로 결정했다. 누군가는 산수도 못 하나며 구박했다. 하지만 우리도 산수! 한 거다!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버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끼 3000원’은 아주 착한 가격에 속하지만, 노들야학은 항상 그랬듯 쉬운 공간이 아니다. “... ..” 3000원이 없어서 급식실 앞을 어슬렁거리는 학생들, 여전히 간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 학생들. 늘 그랬듯, 모두에게 행복한 밥시간은 아니었다.





빈 틈은 늘 있다.

홍준표 도지사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이 대세 아니던가... 무상급식, 평등한 밥상,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도 교육이랬다. 혼자만 잘 먹으면 무슨 재미겨. 평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들에게 급식은 치열한 일상, 함께 살아내려는 몸부림이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 박원순 시장은 급식 문제로 야학에 찾아온 적이 있다. 시장 연임 선거를 앞둔 때였던가. 아무튼 그날 나는 역시나 기회를 틈 타 “친환경 무상급식 해주세요” 한마디 전했다. 안전한 먹을거리로 급식... 가능한 날이 올까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기쁘다. 친환경 급식까지 못 가더라도, 무상급식만 되어도 야학 학생이 1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사실 좀 두렵기도 하지만, ㅎㅎㅎ 같이 맘 편히 밥 먹을 수 있으면, 투쟁도 더 잘하고 건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꿈꾸니까 좋네...



“과장님~ 노들야학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같은데, 무상급식이랑 교육장 확보... 과장님~ 한번 알아봐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여러번 불렀다. “과장님~ 교실 확보 어렵습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급식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시장님 위에 과장님이 있었다. 뭔가 재밌는 견학이었다. 시장실 책상 위엔 내 키보다 높 이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시장님도 야근하시나요?

그래서 시장님~ 과장님~ 우리 밥과 교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종로구청장님 바쁘시죠? 그런데 뭐하세요?

## 종로구에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

노들센터 성근

2015년 4월 14일 우울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꼭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것은 왜일까? 추운데다 비까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종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아주 안 좋은 악 조건에서도 꼭 해야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늘 그랬듯이 종로구청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면담 요청은 무시하고, 중증장애인의 목숨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과 묵살로 일관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무엇이 있는가? 만일 사람의 목숨,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종로구청장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 예산 VS 장애인의 삶과 죽음

왜? 언제까지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아서 또는 활동보조 시간이 턱없이 적어서 추운 겨울날 얼어 죽고, 집에 불이 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현재 중앙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의 끝없는 죽음을 외면해 왔다. 그 죽음에는 엄청난 고통,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기에 어떤 폭력과 폭행이 자행되어도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산골짜기 시설에 살다가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 쳐다보기도 싫었던 시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탈시설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누구나, 너무도 당연하여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종로구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주택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에는 다 있는 자립생활주택이 유독 종로구, '복지 1등구'라고 선전하는 종로구에만 없다.

이 또한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이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폭행과 폭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설에서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산이 없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겠냐고. 글을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 기분마저 우울해진다. 한 숨 돌리고 가기로 하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먹고, 자고, 싸는 것만이 아니다. 당연히 문화적 삶도 필요하며 취미생활도 하고 각종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야 사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하

지만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의 조건과 환경조차 만들어 주지 않는 이 사회는 마땅히,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의 형태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종로구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중증장애인들은 집구석에, 산골짜기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나와 지역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야만 진정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로구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할 말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절실한 요구들을 종로구에 이야기해 왔다. 그 중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다. 하지만 종로구는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아주 적은 지원만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센터의 운영이 열악하게 돌아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종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수많은 권리를 지원해 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제발 종로구는 말로만 복지 1등구라고 하지 말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종로구에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

위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요구가 다는 아니다. 단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우리는 종로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종로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예산은 우리가 그리고 전체 대중이 내는 세금으로 짜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는 세금인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 권리는 행사를 해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권리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빼앗거나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학로야 놀자]

# 시멘트 바르고 싶었던! ~ 마로니에 공원 휠체어 타는 내겐 작은 턱도 너무 높다

노들센터 문주

사람들이 두 발로 걸을 때 나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가는 길 인도에 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두 발로 턱을 밟고 올라서면 다시 걸음을 이어갈 수 있지만 난 그대로 뒤돌아서 턱이 없는 인도를 찾아 길을 바꿔야 한다. 턱 하나 때문에 한참을 돌아가자니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인도의 작은 턱이



내겐 너무 높아 올라갈 수 없는 산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길이라는 게 사라지기도 한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길이 끊어져서 왔던 곳으로 돌아갈 일만 남게 되는 길도 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공원은 앞으로 움직여야 하는 길과는 다르다. 누구든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쉴 수 있는 것이 허락되는 공간이 공원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종로구청장과 종로구에 요구한다.

1. 종로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추가지원
2.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확대
4. 중증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5. 종로구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TF 구성
6.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
7. 장애인일자리 안마사 효사랑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라



계단에 시멘트를 발라 턱을 없애려고도 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지만 흰 천을 물감을 찍은 뽕 망치로 두들기는 퍼포먼스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출근길에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가는데 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었다. 그때는 막힌 것이 풀린 것 마냥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타인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라면 공원은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곳이였을 것이다. 모든 공원을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편안하고 동등하게 설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공원에서, 종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턱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다치는 일도 있었다. 손을 허락받을 수 있기에 성별에,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공원이 누군가에겐 제대로 설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턱을 없애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공원 내

[나쁜 행복을 말하다]

## 귀신일까? 산 귀신?

노들야학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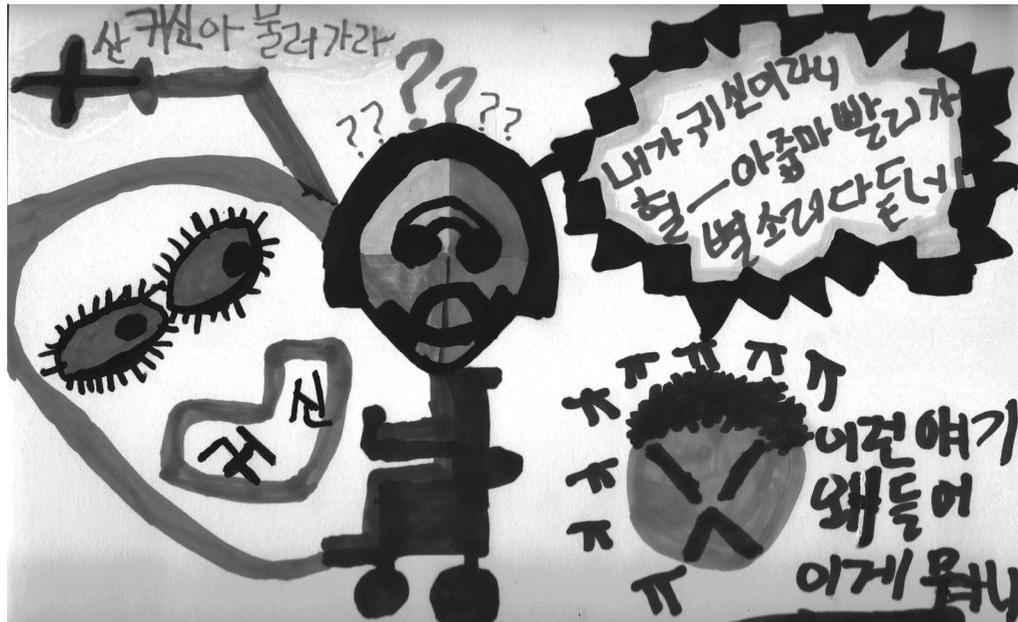


오늘은 황당한 일이 있어서 나만 알고 있는 건 무섭고 짬 없어서 얘기해보려고...

난 춤 배우려고 노들에 갔었어. 한 시간 춤 배우려고 노들에 가냐? 했지. 잠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번 주도 안 갔는데 오늘도 안 가면 가르쳐주시는 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계속 빠질까봐 노들로 출발... 40분 배웠나? 노래도 모르는데 춤 배우라고? (노래 알아도 출까 말간데) 속으로 맨붕, 그랬다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오늘은 지하철을 몇 대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탔네. 딱 날은 사

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몇 대 보내고 탔거든.

지하철 타고 한참 가는 도중에 옆에 있는 칸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 예수 하나님에 미친 사람? 십자가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하나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아줌마였나 봐. 사람들에게는 예수, 하나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얘기만 하고 지나가더라. 거기까지는 난 괜찮았어. 이해도 했고. 그런데 예수 하나님에 미친 아줌마가 나를 2~3초를 봐. 십자가 들고 내 앞 옆에서 알짱 알짱거리려. 뭐라고 중얼 중얼거리는데 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 ㅈㅈㅈ 갑자기 나 보고 귀신이래. (깜놀. 헐~) 귀신아 물러가라 여기 산 귀신이네 (기분 상했어)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해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자꾸 몸을 움직이니깐 십자가를 나한테 대면서 이래서 몸이 이래 귀신이다 귀신아 물러가라 목소리가 점점 커져. 한참 중얼중얼 기도해. 기도하면서 옆 칸으로 가서 또 사람들 예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기분 더러워. 예수 하나 님에 미친 아줌마는 내가 귀신으로 보였나 좀 더 했으면 울 뻔했어.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몰겠다. 귀신이라고 듣는 순간 뇌가 정지됐어. 잠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 정신 차리려고 하니깐 사람들이 나를 귀신으로 보는 거 같았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깐 억울한 거야. 장애인이기 때문에 귀신 취급받는 게... 그 아줌마는 또 다른 장애인 만나면 귀신이라고 분명 할 거야. (속상하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이 미웠어) 장애이라서 귀신이라는 말 들어야 해?

도대체 왜? 왜? 왜? ... 또 듣는 귀가 맘에 상처가 됐네. 빨리 잊고 살아야지. 난 귀신도 산 귀신도 아니거덩. 이런 사람들이 인권 교육받아야 해. (받아도 소용없는 사람도 있겠지) 난 그래도 내가 삶이 헛되지 않게 살려고 남을 이해해주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존중하고 있긴 한데 가끔은 이해고 존중이고 뭐고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두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 솔직히 때려주고 싶어. 더 바라지도 않고 나를 나대로 봐주고 사람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해. 휴~ 답답.

## 평등을 격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노들야학으로

노들야학 영선

야학은 통상적으로 '밤에 공부하는 학교(夜學)'를 뜻한다. 노들야학의 야학은 밤에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 위의 학교(野學)'를 뜻하기도 한다. 즉 별관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부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나에게 야학은 후자의 의미가 상당히 강했다.

나의 대학교 생활은 전공이 '노래패'이고 부전공이 '사회복지'라고 할 만큼(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가지고 있는 전공 책은 딱 2권이였다. 그것도 새 것으로 모셔져 있던.) 소위 말하는 운동권 노래패가 전부인 생활이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학교를 다니다 3학년이 되니, 우리가 항상 평등을 외치지만 학교생활 내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면이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선후배 간의 위계, 토론은 거의 없는 노동운동에 대한 일방적인 학습 등. 이것이 내가 지닌 반항적인 기질 탓이건 실제로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긴, 어쨌든 약간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노들장

애인야학이라는 단체를 발견했다. 그것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뭔가 '필'을 강하게 받은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노들야학 교사 지원을 했다.

그렇게 당시에는 구의동 정립회관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노들야학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을 내가 예상했던 바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이·성별·장애 등 모든 것을 떠나서 누구나 평등하게 얘기하고 경청하고, 반박과 비판이 이어졌다. 마치 헤겔의 변증법처럼 반박과 반박에 의한 최고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은 비합리적으로 보일만큼.

사실 이러한 과정은 업무나 활동에서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들



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참여했던 교사회의 시간에 예전과 똑같은 소통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마도 이런 활동이 있었기에 노들야학이 굳건히 버텨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한 바뀌지 않은 것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나는 문화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문화시설들의 장애인 접근권이나 여러 환경들이 예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좀 더 많은 평등을 이룰 수 있을 텐데. 하얀 집과 파란 집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배워왔던 평등의 개념을 몸으로 배우며 실천하고 싶은 대중들은 꼭 노들야학에서 활동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었던 것은 나의 잘못된 타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인 소수의 의견과 다양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타성.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타성은 내가 제도권 교육을 통하여 오랫동안 몸으로 익혀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노들야학은 나에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평등이라는 개념을 알게 해주었다.

군대를 가게 되면서 야학 활동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도 점점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합리성도 따지면서 좀 더 등글게 살게 되었다. 늘어난 몸무게와 뱃살만큼이나. 그러다 문득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10여 년 만에 다시 야학을 찾게 되었다. 교사는 물론 학생도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었고, 야학의 운영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확보하면서 '휠체어를 밀고 아차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공공성을 쟁취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더욱 인상에 남

## 떼굴떼굴 굴러라 노들아~ 2015년 노들 법인 총회 이야기

노들야학 유미



3월 7일 토요일에 노들 법인 총회를 했습니다. 법인... 총회... 이런 걸 할 때마다 여전히 뭔가 어색하지만, 적응하는 중. ^^

1993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출발한 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할 조직을 하나씩 늘려갔는데요. 장애인이 시설에 갇히지 않고 동네에서 함께 살길을 찾으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작업장을 고민하며 현수막 제작 공장인 노란들판을 만들었습니다. 자립생활 고민 속에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나갈 장애인문화예술관(전 장애인극단판)을 만들었고, 야학 바로 옆 동네인 성북구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해보고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들이 성장했고, 곳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들이 품었던 마음, 소중히 여긴 가치를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이제 '노들' 법인이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노란들판'의 가치로 함께 투쟁하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이라면. 아직 뼈죽뼈죽 잘 정리도 안 되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함께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올해 법인 총회는 노들의 멋진 후원인이 운영하는 고깃집 '갑부집'에서 진행했습니다. 고깃집 특성을 살려 의사봉 대신 고기 집게로 의결하는 진풍경. ... 이번 총회에서는 각 단위에서 추대한 대표들을 회원들이 승인하고, 노들 법인의 이사 정원을 조정해 조금 축소된 규모로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노들의 여러 단위가 떼굴떼굴 잘 굴러갈 수 있기를 응원하며, 모두 힘내라 투쟁~



[노들아 안녕]

#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들 신입 활동가, 신입 직원, 신입 교사를 소개합니다.



< 노란들판 > 송주훈

안녕하세요~ 조금은 바람이 차던 2월, 새롭게 노란들판에 날아와 뿌리를 내린 새싹 송주훈입니다!

저는 슈퍼맨 같은 팀장님과 바디랭귀지의 달인 범민 형 사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작업팀의 서른 살 막내입니다. 실사 출력 마감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없던 저였지만 무작정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노란들판에 노크를 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행스럽게도 노

란들판에서 저를 받아주었네요. 감동!

처음 일한 날은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허둥지둥 일하고 시계를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 다시 허둥지둥 일하니 퇴근 시간. 하루가 너무나 빠르더군요. 물론 지금도 노란들판의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달력을 보니 노란들판에서 일한 지 이제 곧 3개월 정도가 되어가는데요, 아직도 미숙한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엉엉~ 그래도 배운 거 까먹고 또 물어보고 해도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자상하게 다시 알려주시는 팀장님과 어느새 슬쩍 다가와서 엄지손가락을 척! 하니 세워주시는 범민 형 덕에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으쌰으쌰!

노란들판에 와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사람과의 교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세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웃어 보이는 마음가짐.

뒤 아직도 서툰데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서서히 노란들판에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 저도 노란들판의 색깔로 물들고 싶습니다. 송주훈 화이팅! 노란들판 화이팅!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강미진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11월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 체험 홀 담당자로 입사한 강미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임자였던 지연 씨가 출산 때문에 휴직에 들어가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체험 홀 담당 업무는 처음 공고가 나왔을 때 평소 장애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던 저에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왔고 입사지원도 당연히 여성 체험 홀에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였어도 처음엔 누구나 그렇듯 업무가 어설퍼 실수도 하고 왜 체험 홀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했구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 특성을 파악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업무처리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되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수연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맡게 된 김수연 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 12월에 들어와 정신없이 한 해를 노들에서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노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달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노들'의 한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한준



안녕하세요~! 2015년 2월부터 노들과 함께하게 된 김한준 인사드립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면 코가 좀 커서 '칼코'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취미는 프로야구(특히 LG트윈스)를 보는 것이며 한때 베이스기타(Bass)를 째~꿈 만져보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입니다. 늘 즐겁게 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장애인 당사자 분들과도 더불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애해방을 위해 많은 투쟁을 해 오신 선배님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 저 역시 드넓은 노란들판 속 하나의 밀알이 되어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노들장애인야학 > 신원미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청솔1반 '수학'으로 첫 수업을 시작한 신원미 교사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요,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학생이고 나이는 22살, 사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입니다. 취미는 피아노 연주구요. 작년에 반 년 정도 노들야학의 보조교사로 활동하다 정식으로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조금은 얼떨떨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마음은 역시 두근두근 설렘입니다.

노들야학에서 반 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지켜본 것밖에 없기는 하지만ㅎ)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참 기쁩습니다^^

노들은 사람들도 참 좋고, 노들야학이란 공동체 자체도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노들야학을 알게 해준 학교 선배이자 친구인 은별이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학1반의 경남 언니, 지민 형, 혜운 언니, 상연 형, 정란 언니, 수빈 언니와 다른 학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까,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수학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번 학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고 싶어요. 노들 식구들 모두 모두 파이팅~!

< 노들장애인야학 > 김지윤



안녕하세요? 두 달 간의 집중적인 신입교사 트레이닝을 거치고 3월부터 노들야학의 새내기 교사가 된 김지윤입니다. 학부 때부터 장애, 장애학,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박경석 교장선생님을 만났고, 한 시간여 대화 끝에 노들에서 함께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후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3, 4교시 청솔1반 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어떻게 과학 과목을 재미있게 전달할까, 우리 반 학생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은 무엇일까 등등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수업 외에도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조강사, '책 읽는 수요일' 우생학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 분들과 더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어렵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막히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기쁨도 큼니다. 학생 분들과 어제보다 조금 더 친해진, 공감하게 된 저의 매일을 신기해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과 애정의 힘이 새삼 대단함을 느낍니다. 격주로 한 번씩 있는 교사회의에도 최대한 빠지지 않으려고, 또 집회 및 현장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나름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재미 있지만, 아울러 많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노들이라는 '공간'은 참 신기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하고 서툰데 자꾸자꾸 궁금하고 와보고 싶습니다. 한 귀차니즘 하는 집순이인 저를 이곳저곳 총횡무진하게 만듭니다. 딱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마음과 애정이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술을 참 좋아합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노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이야깃거리들을 구실 삼아, 많은 분들과 고민도 나누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유하며 공감하고 싶습니다. 노들의 선생님, 학생, 그리고 노들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 뵈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노들장애인야학 > 허세준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맡게 된 허세준입니다. 노들야학에 발을 들인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풋풋하고 귀여운(?) 초보 교사입니다.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말수도 별로 없는 제가 수업을 맡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번의 수업을 진행해 본 지금도 수업을 하는 날이 되면 야학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수업을 무사히 끝내고 나면 야학을 나서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야학에 다니는 것이 아직 어색하기도 하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서로 웃으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편안하게 터놓고 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해운 누나의 잘못 걸려온 듯한 카카오 보이스트에 괜히 고맙고 가슴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조재범

2001년 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6월 백수생활을 하던 나에게 초등학교 선배가 자신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로 시작한 센터 활동이 2015년 1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2003년 시작한 자립생활센터 활동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난 그동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연합회) 회원 센터 두 곳에서 근무했다. 두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연합회 쪽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자립생활 이념 중 하나인 권익옹호활동에 소극적이며, 그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내가 배운 자립생활 이념 중 하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연합회 소속 센터에 근무하면서 연합회 소속 센터들은 그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

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이런 이념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협의회) 회원 센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연합회 소속 센터에 근무하면서도 평소에 협의회 쪽 센터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동경이 있었다.

그랬던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2013년 12월 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 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 후에 다시 복귀하려고 했지만 회복이 늦어져서 결국 사직서를 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던 2014년 10월 마지막 달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구인공고를 살피던 중, 센터판의 구인공고를 보고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드디어 꿈을 이뤘다. 2014년 11월, 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의 감동과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곳에서 일하는 매일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특히 그리도 가고 싶었던 투쟁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부모님께 자랑처럼 투쟁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 나이 이제 마흔... 이제 이곳에서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내 열정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활동하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보다 좀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내가 되어서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부양무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해야겠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모경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권익옹호와 자조모임으로 보치아 및 전동휠체어 축구를 맡아서 활동하게 된 모경훈이라고 합니다. 5년 전까지 광진구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10년 정도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 중증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참여 증진으로 전동휠체어 축구 종목을 신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정신으로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며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리더십이 강한 편이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 가는 것을 싫어하여,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항상 밝은 모습을 지니려고 노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격을 활용하여 성북구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노들아 안녕]

## 이제는 휴직교사가 된 박준호



2008년 1월 2일 신입교사로 노들야학을 시작해 2015년 2월 28일부로 상근생활을 정리하면서 교사를 퇴임(인지 휴직인지를)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준 노들 사람들 고맙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미안하고 아픈 기억도 많지만 이제는 많이 무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짜증이 밀려오고 뒤에서 들리는 조금 큰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나르던 집을 팽개쳐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어쩌면 7년차 상근자의 피곤함일지도 모르겠고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는 것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노들을 그만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노들을 나가서 마주치게 될 무서운 상황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업, 빈곤, 고독, 소득이 없는 생활, 무너지는 일상...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꿈자리가 뒤송송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어디의 누군가가 아닌, 나의 이름으로,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할 생각이지만 자신이 없고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낮가림도 여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많습니다.

노들야학 교사는 빠르게 복귀하고 싶지만 살 준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노들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나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뻐개지는 회의시간이여...) 노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때가 되면 좀 받아주세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묻고 또 물었다

활동보조인 김철수

내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직업으로 택하여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길지만 세월은 꽤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이면 한 번쯤 그간 겪어왔고 살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택했는가 후회가 된 때도 있었고 보람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일들을 그간 간간히 메모해두었습니다. 추려놓은 쪽지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는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껴보기도 하고 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입속에서 웅얼거려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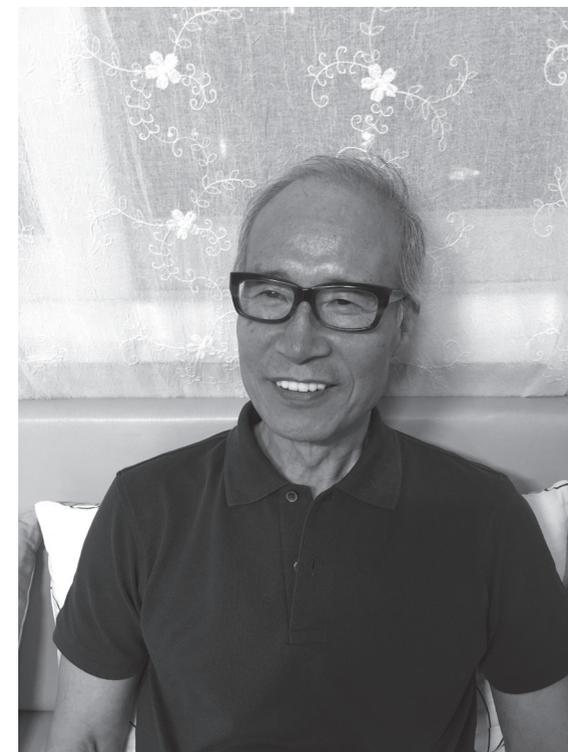
그간 여러 명의 이용자들을 겪어보면서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생활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변으로 어지럽혀진 실내에 들어설 때의 황당함이 있었고, 술병과 옆질러진 술잔들과 안주들이 뒤섞여 엉망이 된 실내에 들어설 때의 곤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시고 싶었던 물병이 엎어져서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쏟아진 물로 흥건히 젖은 바닥과 그 주변에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진 실내로 들어섰을 때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이용인의 말을 받아주면서 방을 청소할 때는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나는 활동보조 이용자 입장에서 나 스스로 이해하려고 했는

데, 그럴 때면 내가 내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고 스스로 묻고 또 묻습니다.

답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그때의 대답들은 혼란스럽거나 어지럽혀진 그 공간들과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 대답들은 분명했습니다. 그 답들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간 간간히 메모했고 사색했던 것들에 의하면 그 대답은 두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우선 나는 이곳에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해봅니다. 그러려면 그때그때마다 먼저 나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산만하게 어지럽혀진 곳들을 깔끔하고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면서 이용자들 개개인이 활동보조인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일은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그 끝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활동보조인이 이용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개개인의 활동보조 이용자들은 주변 생활환경의 청결과 정리 정돈, 이를 테면 목욕할 때 몸부터 씻을지 아니면 머리부터 감을지, 밥을 지을 때 물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또는 원하는 찌개를 요리할 때에 식재료를 담고 씻어서 어떻게 썰고 으깨어 넣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원하는 대로 끓여진 찌개 맛을 보고 음미하면서 “원하는 그 맛이예요”하며 좋아하는 것과 같은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하고 싶어도 만들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활동보조인이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원대한 것이 아닌 우선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 지원에서 어디가 불편해 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완해 주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식사보조를 할 때 흘리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면 종류를 식사할 때 종이컵에 면을 국물과 같이 덜어 넣어 마시듯이 먹게 하여 맛을 즐길 수 있게 한다든지, 국은 빨대를 이용하여 빨아 마시도록 한다든지, 밥을 뜯 수저에 다른 반찬을 얹어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따로 따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본다든지 하는 것들처럼, 사소하지만 세밀한 것들의 살펴봄이 서



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일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규칙적인 의복 세탁과 침구 세탁,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는 일들이라든지, 식수관리를 어떻게 해야 위생적으로 원하는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든지, 시장에서 가격홍정을 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알뜰하게 챙겨준다든지, 외출할 때 많은 사람으로 혼잡스러울 때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길을 터주어 무리 없이 가도록 한다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저상버스와 일반버스를 구분하여 저상버스가 진입할 때 정류장 입구에서 장애인이 타야 함을 미리 알려 장애인 이용자가 무리 없이 버스에 승차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것에서 서로의 의지가 확인되고, 그 확인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싹,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활동보조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서로 이해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싹들의 잎이 퍼질 때가 활동보조인이 그저 장애인 이용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활동보조인으로서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이용자는 몸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을 누군가 보조해준다면 삶을 제대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또렷이 살아 있는 눈동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즉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잘 보이는 것

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하려는 생각과 처신에서, 삶의 의지를 다시 되살리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활동보조 제공자로서 뚜렷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활동보조 하루 일과가 끝나갈 때쯤, 이용자의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상태를 확인하여 충전을 쏘아눅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 수첩을 꺼내봅니다. 내일 나의 일정은 어떻게 되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보면, 내가 내려야 할 곳에 다 와 가고 있음을 알리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백팩을 챙겨 버스에서 내려, 왼 손목을 들어 시계를 봅니다. 밤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노들센터 아라

이번 뽀글뽀글 활보상담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VS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제한?

####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지난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의 슬로건입니다.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일까요?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만 6세 ~ 만 6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면서도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활동보조 코디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돌연,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정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전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로는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장애등급은 단순히 외부 신체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데 비해 장기요양

등급은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불편한 노인을 의학적인 기준으로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목적부터 다르게 애초에 장애인을 대상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시킨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게 되면, 기존의 활동보조제도로 받는 시간 보다 현저히 적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아래(60p)에 나와 있는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 등급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일 기준 보통 4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1등급 27일, 2등급 24일, 3등급 22일 등으로 방문일수가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제도로 월 최대 700시간 이상을 사용하다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하루 4시간 정도만 이용해야 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활동지원제도 지침에 나와 있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살펴볼까요? 이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활동보조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인정조사표를 통해 현재의 상태 및 정도를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등급을 매기는군요. ::) 등급 외 판정을 받으려면 인정조사표에 나와 있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중증장애인이 등급 외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

### 방문요양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세면, 식사, 구강관리, 머리감기 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배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산책 및 병원 동행), 일상업무 대행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방문요양 등급 및 서비스 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별 상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인지기능장애와 문 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
전반적 상태	하루종일 침대생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유지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용 가능	생활 관리 능력의 저하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	45점 이상
서비스 지원액	월 1,185,300원	월 1,044,300원	월 964,800원	월 903,800원	월 766,600원
방문일수	약 27일	약 24일	약 22일	약 21일	약 18일
본인 부담금	약 17만원	약 15만원	약 14만원	약 13만원	약 11만원
국가지원(%)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100% 무료 / 경감 대상자 : 92.5% 지원 / 일반 대상자 : 85%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표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 벗고 입기</li> <li>• 일어나 앉기</li> <li>• 소변 조절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수하기</li> <li>• 옮겨 앉기</li> <li>• 양치질하기</li> <li>• 방밖으로 나오기</li> <li>• 화장실 사용하기</li> <li>• 식사하기</li> <li>• 목욕하기</li> <li>• 체위변경하기</li> <li>• 대변 조절하기</li> </ul>
인지기능(7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기억장애</li> <li>• 장소불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시불인지</li> <li>• 의사소통 · 전달 장애</li> <li>• 낯짜불인지</li> <li>• 나이 · 생년월일 불인지</li> <li>• 상황 판단력 감퇴</li> </ul>
행동변화(1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상</li> <li>• 길을 잃음</li> <li>• 부적절한 웃임기</li> <li>• 도움에 저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성거림, 안전부절못함</li> <li>• 돈/물건 감추기</li> <li>• 불규칙수면, 주야혼돈</li> <li>• 의미업석나 부적절한 행동</li> <li>• 물건 망가트리기</li> <li>• 슬픈상태, 울기도함</li> <li>• 밖으로 나가려함</li> <li>• 환각, 환청</li> <li>• 폭언, 위협행동</li> <li>• 대/소변불결행위</li> </ul>
산호처치(9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지 절개관 간호</li> <li>• 산소요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영양</li> <li>• 암성통증간호</li> <li>• 도뇨관리</li> <li>• 흡인</li> <li>• 욕창간호</li> <li>• 장루간호</li> <li>• 투석간호</li> </ul>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측상지</li> <li>• 좌측상지</li> <li>• 우측하지</li> <li>• 좌측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깨관절</li> <li>• 고관절</li> <li>• 팔꿈치관절</li> <li>• 무릎관절</li> <li>• 손목 및 수지관절</li> <li>• 발목관절</li> </ul>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단순한 이해조차 없는 제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 64에서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령의 제한으로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시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다가 지원범위가 넓고 기존과 같이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수요가 집중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꾼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농성을 한 지 1000일이 되어가는 현재...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생기지는 않을지,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투쟁!!!!

[교단일기]

## 안녕! 노들 미술반!

노들야학 정민

혼자 그림만 그리던 그림쟁이가 노들야학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몸에 맞춰 제일 신나고 재밌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을 끝마친 지금, 제가 겪은 노들 미술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짧게 적어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리는 방법과 작업 취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언니

○○언니는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수업보조인의 몸을 통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언니가 최대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 배치, 묘사 방법, 색깔, 세세한 포즈들까지... 그림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니가 결정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니는 풍경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 파스텔 톤의 색감.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늘 사랑하는 남녀가 앉아 있습니다. 남녀는 우리 쪽으로 앉아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등을 지고 먼 풍경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그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  
ㄹ스형

ㄹ스형은 붓보다는 크레파스나 색연필, 사인펜 같은 재료를 쓰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완성하면 꼭 그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림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ㄹ스형의 그림 안에는 늘 같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교장 선생님, 영희 선생님, 민구 선생님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차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ㄹ스형의 그림 속에서 ㄹ스형은 세 영웅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나기도 하고, 세 영웅들과 함께 야학에 오기도 하고, 세 영웅들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도 합니다. 그림을 설명하고 있을 때 ㄹ스형의 모습은 극적인 모험에서 갓 돌아온 영웅 같습니다.

\*  
ㅇ씨

ㅇ씨는 손에 경직이 있지만 끈기 있게 끝까지 혼자 그림을 완성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림을 정말 좋아하세요. 속도가 남들과 다르다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세밀하게 멋진 그림을 그려 낼 것입니다.

처음 ㅇ씨가 제 수업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ㅇ씨 어머니는 “ㅇ

씨가 뭘 할 수 있겠냐. ㅇ씨는 못 한다.” 라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멋진 그림의 진면목을 어머니가 봐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께, 늘 ㅇ씨의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전했습니다.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ㅇ씨가 그런 이야길 하고 싶었구나.” 하시더니, 언제부턴가 “역시 ㅇ씨가 잘한다. 우리 ㅇ씨가 그림을 잘 그려요.” 라고 했을 때, 전 정말 기뻐했습니다.

\*  
ㅎㅇ언니

ㅎㅇ언니는 자율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준비해간 수업을 따라 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흠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수업보조인이 먼저 배정되는 것을 많이 섭섭해 합니다. 수업보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참! 수업보조인은 꼭 남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업보조인에게 반말을 할 때가 많아서 종종 수업보조인의 얼굴이 벌게지곤 합니다. 저에게도 상처 되는 말을 많이 해서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단호히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온 ㅎㅇ언니가 포장을 채 뜯지도 않은 화려한 브로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웬일인지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평소엔 남성복을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그날 이야길 들어보니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남들 모르게 집에 모아만 놓았다고 합니다. 왜 평소엔 하시는지, 왜 남들에겐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날 언니는 우리 모두 앞에서 멋지게 브로치를 착용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너무나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빨개진 얼굴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귀걸이와 목걸이를 꺼내 착용하였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들보다 언니의 웃는 얼굴이 훨씬 반짝거렸습니다. 언니는 ‘예쁜 것’ 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림에도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을, 아주 많이 쓰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날 이후 종종 멋진 액세서리를 하고 등교하시는 언니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음이 번지곤 했습니다.

\*  
ㄷㄹ형과  
ㄱㄴ언니

ㄷㄹ형, 그리고 ㄱㄴ언니와 원활히 수업하기까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드는 것을 전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소양이 많이 부족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냥 미술을 전공했던 저였기에 좀 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두 분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좋고, 맞는 방법은 두 분을 지도할 수 있는 전공자 교사가 일대일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분이 넘는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두 분에게만 붙어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께는 비전공 보조교사가 붙더라도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늘 두 분께 죄송했고, 풀지 못한 숙제 같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수업을 이끌면서도, 두 분은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반년쯤 지나니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ㄷㄹ형의 경우 수업내용을 쉽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수업 초반에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면 그 다음부터 보조교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단계별로 보여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ㄷㄹ형이 돼지를 그리고 싶을 때, 완성된 돼지를 보고 그리거나 상상해서 그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개의 동그라미를 보조선생님이 그리면 그것을 보고 따라 그립니다. 큰 동그라미와 여러 개의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씩 따라 그리다 보면 ㄷㄹ형이 그리고 싶어 했던 돼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의 경우도 같습니다. ㄷㄹ형이 만들고 싶으신 것을 보조교사가 한 단계씩 보여주면 따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을 혼자 완성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저 또한 기뻐했습니다.

ㄱㄴ언니의 경우 수업내용을 따라오기 어려워합니다. 해서 수업내용에 상관 없이 언니가 그리고 싶거나 만들고 싶은 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주로 단순 반복 작업일 때가 많습니다. 동그라미를 반복적으로 그리거나, 지점토로 동그라미를 수없이 만들거나 하는 식입니다. 색종이를 작게 수없이 자르기도 합니다. 제가 할 역할은 언니가 만들어낸 수많은 파편들로 재밌어 할 만한 활동을 생각해내어 보조교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게 자른 색종이는 꽃받침을 그린 도화지에 붙이면 예쁜 꽃이 됩니다. 수 없이 만든 지점토구슬을 색색이 칠해 피어내면 예쁜 목걸이가 됩니다. 언니가 만들어낸 재료로 보조교사와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두 분이 편안해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  
ㅇㅇ님

ㅇㅇ님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꽤 심한데도 엄청난 모사력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수업시간 내내 조용히 집중해서 그립니다. 그런데 맘에 걸리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활동보조분이 허투루 그의 그림에 손을 대 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 김새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이용자의 늦은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맘대로 그림에 손을 대어 완성해 버리는 활동보조인의 모습은, 평소 그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활동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수업 중간에 개인 불일로 사라져 버리거나, 활동보조인이 아프다며 종종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 집에서 그려오곤 했습니다. 그 열정이 멋지면서도 수업에 함께 못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림은 백이면 백,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서 저는 절대로 남의 그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 학생의 그림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

가의 말을 똑 잘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화지 한 장도 존중받아야 할 그만의 세상입니다. 해서 활동보조인이나, 수업보조인이 학생분의 그림에 손을 댈 때는 확실히 양해를 구하고, 미리 개입할 정도를 서로 약속한 뒤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 경험상 학생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때 훨씬 멋진 그림이 탄생합니다. 그 이유는 한 장의 종이 완전히 그 사람만의 이야기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  
ㄱㅇ언니와  
ㅁㄱ언니

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요구가 생겼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는 수업 말고, 긴 호흡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여 미술반 안에는 두 개의 반이 생겼습니다. ㄱㅇ언니와 ㅁㄱ언니는 긴 호흡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을 선에서 기법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ㄱㅇ언니는 입으로 그리기 때문에 붓이 편합니다. 하여 입으로 물 수 있는 붓을 만들었습니다. 세밀한 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면과 점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ㅁㄱ언니는 손을 크게 움직이거나, 힘을 주는 것이 어려워 세밀한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두 분 다 집중력이 놀라울 만큼 좋습니다. ㄱㅇ언니는 한 그림을 맘에 들 때까지 몇 장이고 새로 그릴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한번은 아기 천사를 그리더군요. 인물은 처음 그리는 통에 영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아기 천사를 그리는지 물으니, 친구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림을 완성해서 선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그리다 보니 큰 붓을 물기 어려워서 작은 그림이 편할 텐데도 선물해야 한다며 큰 종이에 한가득 아기천사를 그리는데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몇 주가 걸려 완성된 아기천사는 멋지게 액자 옷을 입고 ㄱㅇ언니 친구와 뱃속의 아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언니는 지금도 인권강의를 나가면 자신의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언니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그림입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미술반에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술반에선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없어요. 얼마나 즐겁고 진심으로 그리는지가 중요해요.”

누군가 “난 그림 못 그려요.”라고 할 때마다 말하다 보니, 나중엔 제가 운만 띄워도 학생분들이 줄줄 외웠습니다. 그림은 다른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누군가는 화려한 수사와 세련된 어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만이 멋진 표현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만의 표현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언어로 즐겁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3년 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가슴속에 커켜이 쌓여서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신 노들 미술반 학생 여러분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안녕! 노들 미술반!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 학교에서 만난 인권들

인권센터 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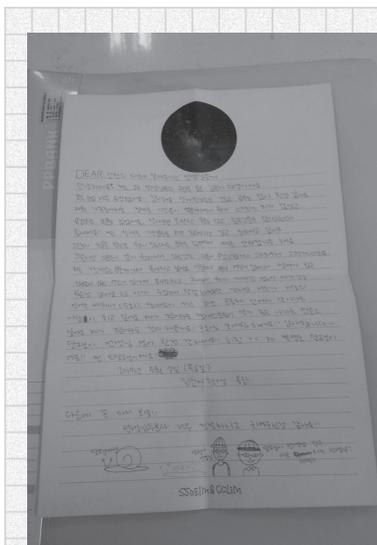


위 작품은 김재연 인권강사님이 손수 한 땀 한 땀 그려준 '노들장애인권센터' 로고다. 우리는 보통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짝을 이뤄 학교로 장애인권교육을 나가고 있다. 요즘은 그야말로 '인권교육의 성수기', 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끝과 끝을 누비며 총횡무진 출동 중이다. 땀 빼질.

아래 편지는 얼마 전 인권교육이 있었던 창문여고에서 달팽이 강사님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다.

우리 모두 평등세상 만드는 달팽이가 되어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가요! 후비고!

아래는 얼마 전 하늘초등학교에서 '어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쓴 편지를 종이 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사진과 편지의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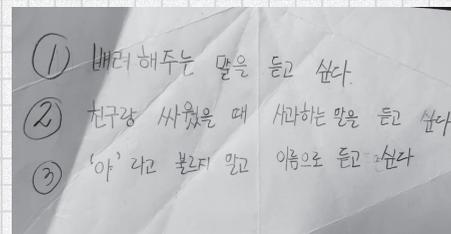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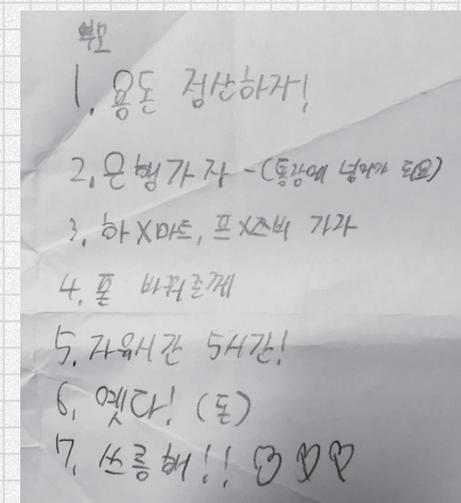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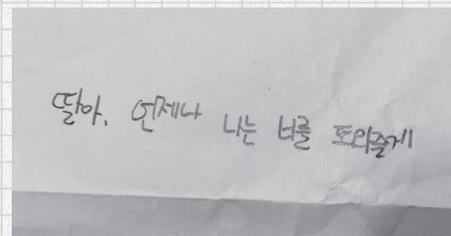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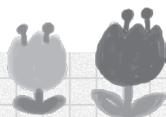
아까 수업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워서(수화) 장애인이 아닌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장애인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건의 해볼게요!! 항상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달팽이 선생님, 영어 완전 잘하세요!! 히히 X 제 별명도 달팽이에요!! 전 민달팽이에요!

2015년 5월 7일(목요일)

김민지 학생 올림!!

다음에 꼭 다시 배요!! 선생님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귀여우신 것 같아요!!





1. 놀러 나가서 햇빛 쬐면서 놀아라  
2. 오늘 하루 놀아라.  
3. 마음껏 먹어라.  
4. 핸드폰 봐도 된다.  
6. 뽕줄게 5. 아프거나 골라봐.  
7. 나가서 놀고와  
8. 수영장가자  
9. 원하는대로해도 되

고마워  
니가 최고야  
서희훈  
6-3 항지훈

-준형아 클라머자-

부모님께 듣고 싶어요  
너에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학원이나 학원수업은 조금 쉬었  
다 해도 되... 그리고  
놀때 놀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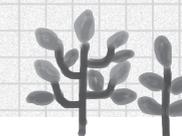
드디어  
즐거게

너 소중해  
대단하다  
꼭꼭해  
갈했어  
괜찮아  
핸드 좋아  
쉬고 해

나에게  
인권을 주세요♡  
And I love you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쉬자. 꼭 쉬렴.

하고 싶은 것 해봐.  
뭐든지 해.  
패싱마스터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쉬고 싶다. "야"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듣고 싶다.>  
인권의 시작은 거창한 무엇, 정치적인 무엇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 아닐까?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그 누구의 인권도 무시당하지 않고 소중히 다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영애



종훈과 수연



민구와 상연



형호와 정민



이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대한 인문학 적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내 작품 보여줄게. 노는 동안 할 일이 없었던 거지. 나라고 그랬는데 다들 비웃었다. ㅎㅎㅎ 이젠 경복궁에 닭처럼 생긴 게 있어서 사진 찍어서 그린 거다.



**\* 잘 그린다. 잘 그렸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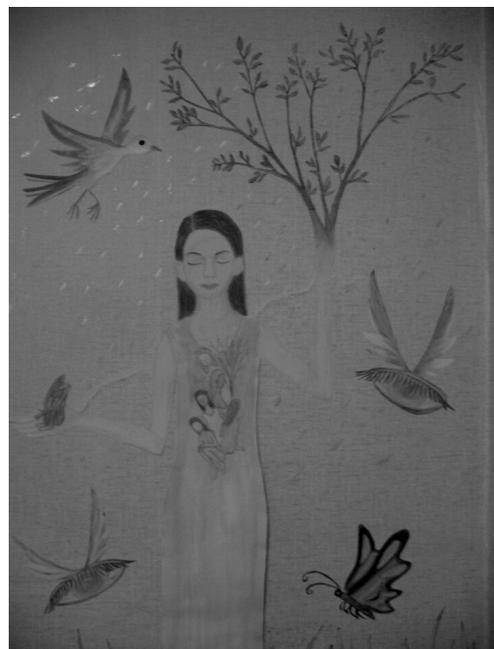
- 이젠 한강철교.



**\*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예요?**

-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이거 나 안 닮았지? 코가 너무 길어.

**\* 승화짱 언닌가? ㅋㅋㅋ**



이 모든 평화로운 나날은 '악마의 테이블'에 앉는 순간 끝이 났다고 한다.

- 학교에 교무부장이 비었어. 교무부장이 회의 진행해야 하고 이런 업무가 있어. 근데 그게 비었다고 나보고 하래. 난 처박혀서 서류나 만지고 이런 건 잘하거든 내가. 근데 막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그런 건 하지를 못하는데... 일이 생기면 조정해야 하고. 근데 난 나도 조정이 안 되는데 누굴 조정하냐, 푸흠. 회의나 이런 것들 잘 못하겠다. 근데 해야만 하고 막 그건 게 너무 스트레스다. 나랑 맞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 없다고...

**\* 그림 야학 복직은 언제쯤?**

- 모든 게 이 악마의 테이블로 귀결되는데, 이거 안 했으면... 난 야학이 좋거든. 야학이 재밌거든 나는.

**\* 그럼 내년에는 그런 업무 안 말도록 야학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게요. 전동 몇 대 싸악 와서 점거하고 여기 오야 누구냐고. 오야 나와! 전동이 둘러싸면 겁나지 ㅋㅋㅋㅋ**

**\* 수업하는 건 재밌어요?**

- 수업하는 건 좋아하지. 1학년이라 재밌는 것도 있고. 애들 귀엽잖아. 오늘은 수업 들어가서 뭐 했냐면 수업 시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다. "닭

죽을 먹었는데 닭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닭 먹은 사람 손~!” 하니까 스무 명 중에 열 두 명이나 닭을 먹은 거야. 푸핫. “그럼 닭 말고 돼지를 먹은 사람 손~!” 이런 걸 해도 애들이 그렇게 즐거워해. 애들 진짜 착하다.

\*며칠 전에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미국에서 시작한 교수법인 거 같아요.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 거꾸로? 거꾸로 수업?

\*어어어어. 재밌더라. 미리 동영상으로 집에서 공부해 오고 학교에 와서 모둠별로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그렇지. 해볼 만한 수업이지. 근데 내가 잘 못 하는 게 모둠수업, 활동수업 이런 걸 능숙하게 못 하고 교사주도의 수업을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좀 해볼라구.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수업. 근데 애들이 너무 밀바탕이 없으면 토론도 안 되잖아. 그래서 밀바탕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주도를 하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거야.

- 야학수업 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활동하는 거 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야. 주체적

이고. 근데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 보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살짝 아쉽고 그랬지.

\*맞아요. 덕민이형 같은 사람들이 “그거 왜 해” “하던 거 해” 이런 말 하고. 새 학기 때 교사가 항상 물어 보잖아요. “이번 학기엔 어떤 국어 수업을 해 볼까요?” 하면 “뭘 물어. 어차피 물어 보고 니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면서~” 푸핫.

- 푸하하하하. 짱 현실적이야.

일이 많으니까 다들 컴퓨터에 코 박고 있다가 날카로워지고 막. 참. 나 노들텃밭 떨어졌다. 노들텃밭 떨어지고 대방동 여성프라자 앞에도 텃밭 있거든. 거기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누나도 텃밭농사 좋아하죠? 그럼 학교를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 가고 싶지. 가고 싶는데 혼자 너무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같아서...

\*나중에는 한적한 학교로 가고 싶은 계획도 있어요?

- 가면 좋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는데 그런 거 좋아하니까.

[노들 책꽂이]

## 눈물을 나눠 갖자. 우리 모두 유가족이 되자.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비마이너 김철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 창비 출판사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글) 김보통(그림)

이 책을 쓴 작가기록단 중 한 명인 홍은전으로부터 책을 건네받고 펼쳐 든 순간, 이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섬뜩한 감정이 한 움큼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목차 바로 다음 페이지에 실린 삽화 때문이었다. 만화가 최호철이 그린 이 삽화는 그간 세월호 사건을 알려온 어떤 기사나 영상들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가 A4용지 한 장 크기의 삽화를 통해 전해지면서 나를 순간적으로 내리눌렀다.

동거차도, 대마도, 삼조도, 관매도, 병풍도.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좁은 바다를 둘러싸고 있던 섬들의 이름이다. 그림은 헬리콥터를 타고 바다를 내려다 본 상태에서 그린 듯한 구도였다. 섬들 각자는 마을 하나를 구성하기에도 벅차 보일 만큼 작았고, 조금 위쪽으로는 팽목항이 보였으며, 그 위로 는 진도체육관, 그리고 또 좁은 해협만 건너면 바로 육지였다.

그렇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월호는 태평양 한 가운데 먼 바다에서 침몰한 것이 아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우적우적 음식을 먹으며 인터뷰는 계속됐다. 하지만. 쏘! 이후 대화는 오프더레코드(영어로 못 씬)다. 뒷담화는 소중하니까! 이후 대화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화장의 엄동설한’에 가입하시라. 언제 할지 모르는 2차 정보 때 얘기해 줄 테니. (회원가입 루트는 비밀이다. 워낙 비밀스럽게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조직이니 이해 바란다.)

듯한 그 곳에서,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종류의 배들이 오갈 법한 그곳에서, 수많은 섬들 한 가운데서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 삽화 한 장 때문에 지난해 수도 없이 마주해야 했던 난센스와 같은 물음들이 숨을 조이듯 다시 차올랐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배가 침몰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구하러 오지 않는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배가 침몰하는데도 구하러 오지 않는 기가 막힌 사실을 외면하고 '전원구조'했다는 뻔뻔스러운 오보를 낸단 말인가? 이런 일이 누가 걱정하고 배를 빠뜨린 게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물음들이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다가 '아,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 무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하는 생각에 미치자, 물음의 연쇄들은 꼬리를 감추며 질서 없이 흩어져버렸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쉽게 흩어져버린 물음들을,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마치 한 몸처럼 붙들고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물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식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길이 없기에.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살 속에 आरो새겨진 이 물음들을 물어버린다는 것은 곧 유가족 자신을 물어버리는 것과 다름 아니기에.

그렇다. (누군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월호 유가족이 원한 것은 보상금도 특례입학도 아닌 '알 권리'였다. 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물음의 수신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같은 것들에 빗대며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으로 답신을 대신했다. 이내 유가족의 '물음'은 '울음'으로 변해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눈물 속에 고립되어만 갔다.

그래서 그 고립을 뚫고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온 그들의 인터뷰를 읽는 일은, 웬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코 망각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 세월호 참사오열과 분노, 좌절과 무력감을 딛고 증언하는 유가족들의 인터뷰집”

책 뒷면 표지에 적힌 이 문장에 담긴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솔직히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증언'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일상적인 테러가 벌어지는 제 3세계나, 20세기에 세계를 휩쓴 국가 간 전쟁에 대해서나 어울리는 단어 아니었나? 그런데 증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나와 너무도 가까운 시공간 안에서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치유되기 힘든,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순간들이 살갓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소연이와 단 둘이 살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이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삶의 방향과 감각을 잃었다. 죽으려고 와동중학교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한꺼번에 대어섯 병씩 들이켜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기를 반복했다.

(2학년 3반 김소연 학생의 아버지 김진철 씨)

“승이를 설득해서 아빠가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10분, 20분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치료 순서인가보다 생각했죠.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고 괜찮냐고 질문을 던지면 위로가 되냐?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나?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동생 잃은 아이에게 약물을 주는 게 무슨 치료냐 싶고, 감기 예방접종 받으러 가는 기분이 드니까 더 가자고 못하겠더라고요.”

(2학년 3반 신승희 학생의 어머니 전민주 씨)

이 고통의 정체는 무엇인가. 고통을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어느 부모는 유가족들끼리 모여 맥주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새끼를 잃고 히히덕거린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술집을 찾아다녀야만 한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들은 움츠러들었고, “집 밖을 나갈 수도 집 안에만 있을 수도 없는 시간, 아이의 물건을 태울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시간, 밥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시간”(미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을 보내야만 했다.

“하나님하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 고통과 방향의 시간마저도 기꺼이 살아내야만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눈에 뵈는 모욕도 마다하지 않았다. 2학년 5반 이창현 학생의 아버지 이남석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그를 차갑게 외면하고 붉은 카펫을 밟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 그 이유를 감히 알려고 하지도 말 것을 요구받는 불행 앞에서 어쩌면 포기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무릎 꿇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한 어떤 지점들을 부모들은 그대로 뛰어넘었다. 부모들은 예단하지도 속단하지도 않으면서 유연하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릎도 꿇었다. 고통 앞에 솔직했고 자신들의 바람 앞에 명확했다.” (김순천)

유가족들이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2학년 5반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 씨의 말처럼 ‘하나님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 천국으로 간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리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얻어야 해.”

이 숙제가 어찌 그들만의 숙제일 수 있을까. 유가족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과연 이 숙제를 외면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 유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행동에 옮기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침묵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것”(김순천)이라는 사실을 터득했고, 그것이 이 사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돌려 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죽은 사람의 남아있는 가족’(유가족, 遺家族)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사회의 양심과 영혼의 증거로서 ‘유대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가족’(유가족, 紐家族)이다. 그 유대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을 가두



던 고립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참사를 지켜보며 두려움을 느꼈던 모두가 유가족(紐家族)이 되길 요구하고 있다.

김소연 학생의 아버지 김진철 씨는 국회나 청운동에서 노숙생활 하는 것보다 나중에 뿔뿔이 헤어져 혼자 남게 될까 봐 더 두렵다고 한다. 그가 두려움의 벽에 갇혀 외롭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의 눈물을 나눠 갖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유가족(紐家族)이 해야 할 마땅한 인간적 도리이다.

[동네 한 바퀴]

#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달'을 소개합니다

동송동 노들 3분 거리에 있었네  
「다이빙 벨」, 「두 개의 문」...  
「노들바람」도!

인권센터 친구

독립영화를 제작 배급하는 시네마달이 동송동 노들 근처, 아주 가까이로 이사했다. 시네마달이 이사 오고 얼마 있다가 책방이음 조진석 지기님의 기획(?)으로 야학에 모여 급식을 함께 먹은 적이 있다. 우리 동네 좋은 친구인 '시네마달'의 안보영(안), 오보라(오) 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는 '밍'이다.



다이빙벨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 2014)  
다큐멘터리 2014.10.23 / 77분 / 한국  
감독 안해룡, 이상호

- 밍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달에서 배급과 제작을 같이하고 있는 안보영 피디라고 합니다.
- 오 저는 홍보 담당하고 있는 오보라입니다.
- 안 시네마달 터줏대감이에요. 히힛.

- 밍 시네마달 소개 좀해주세요.
- 안 시네마달은 독립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배급하는 유일한 배급사예요.

- 밍 배급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안 배급한다는 건 만들어진 영화를 어떤 과정과 통로를 거쳐 관객과 만나는 행위 모두라고 보시면 돼요. 극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상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IP티비 상영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다운을 해서 집에서 볼 수도 있고, TV 혹은 DVD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것들을 배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 밍 『노들바람』을 읽는 분들 중에 '독립영화'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사실 나 —,..—;)

- 안 오 하하하. 어렵다. 우리가 하면서도 어렵다. 하하하.

- 오 사실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큰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화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극장 시스템에서 보면 '다양성 영화'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주류 매체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 다큐멘터리 중에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안 추상적이예요, 범주가. 지금이야 독립영화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엄밀히 얘기 하면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독립영화라는 범주에서 제작된 영화는 소규모 혹은 개인이, 특히 독립 다큐 같은 경우는 활동의 영역에서 시작된 장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독립 다큐의 정체성은 활동가가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었죠. 근데 점차 시스템화 되고 확장되면서 하나의 영화적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제작할 때 어떤 이해와 요구에 따르지 않고 감독 연출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보

장받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영화는 뭐다!'라는 명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뭐지?'라는 질문이 생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 ◉ **밍** 독립영화를 즐겨보는 관객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엔 8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 **오** 체감적으로 보면 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화제가 되는 작품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낭소리」라든지. 그런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는 건 아니어서 독립영화 관객층이 얼마나 있는지, 고정 관객층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색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 ◉ **밍** 저도 「다이빙벨」을 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고 싶으면서도 보고 나면 무겁고 슬픈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 ◉ **안** 다른 관객들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 ◉ **오** 주변에서 보면 봐야 할 것 같은데 나의 심적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선뜻 못 보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 **밍** 영화가 흥행이 잘 돼야 배급하는 입장에서 단체를 운영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으세요?
- ◉ **안** 사실 「워낭소리」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어느 정도 회자되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배급한 영화 중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두 개의 문」인데 8만 명이 봤어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300만이 넘었죠. 「워낭소리」도 300만이 넘었고. 가장 많은 스크어를 친 영화가 8만하고, 300만이에요. 근데 다른 영화를 보면 스크어가 아주 저조해요. 저희가 배급하는 영화들이 수익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화들이 훨씬 더 많아요. 활동하는 단체라고 하면 지원도 받고 회비도 모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배급사라 오로지 시장에서 경쟁해서 수익을 내야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게 신기할 정도죠.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 사실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지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저희가 다루고 있



워낭소리 (Old Partner 2008)  
다큐멘터리, 가족 2009.12.19 / 75분 / 한국  
감독 이충렬

는 콘텐츠가 열 개면 그 중 하나는 대박을 쳐야 하는데, 저희가 다루는 작품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아이템이나 이슈를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관객층이 협소해요. 애초에 이런 콘텐츠로 대박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 ◉ **밍** 요즘 상영 중인 「다이빙 벨」은 좀 어때요?
- ◉ **오** 「다이빙 벨」은 감독 인지도가 있고 워낙 이슈가 된 사안이라 다른 작품에 비해서 낫죠. 1만이면 대박이라는 상황에서 「다이빙 벨」은 5만 관객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작품들, 예를 들면 「망원동 인공위성」의 경우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죠. 대부분이 고민하게 하고 불편한 지점을 건드리는 영화가 많다 보니까 보는 관객들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 ◉ **밍** 영화를 올릴 수 있는 극장을 찾는 것도 쉬울 것 같진 않은데.
- ◉ **안** 기본적으로 극장에 올리려면 홍보 마케팅에 얼마의 돈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많이 쓰면 더 많은 극장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영화를 개봉한다고 했을 때 홍보 배급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정도가 저희는 최대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인데, 이삼천이 있어야 개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다양성 영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정책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런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독립영화가 극장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여서 더 어렵고 열악해진 상황이 된 거죠. 아니면 소셜펀딩을 해서 이런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개봉비를 모아서 개봉하기도 하는데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

다보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가 비용을 먼저 드리고 개봉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회수가 잘 안 되니까 어려워지기도 하죠. 우울한 얘기만... 조건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힛.

-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 저희 작품 중에 「노들바람」... 하하하.
- 하하하. 부끄럽네요.
- 「나비와 바다」라고 2013에 개봉했던, 뇌병변장애가 있는 분이 결혼하기까지의 고민을 다룬 작품이에요. 요지는 가부장제는 다 똑같다는 거야. 푸훗.
- 청소년 운동하는 「따루」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곤대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 하하. 이 영화 학생 분들이랑 봐도 재밌겠네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 공동체 상영을 통해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려면 온라인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인디플러그나 네이버에서도 될 거예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공동체 상영을 하면 감독님을 초청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나비와 바다 (Sea of Butterfly, 2011)  
다큐멘터리, 가족 2013.01.24 / 89분 / 한국  
감독 박배일

-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추천해줄 만한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실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감독님이 직접 찍은 작품이에요.
- 일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뭡가요?
- 저는 제일 흥행한 「두개의 문」이에요, 히힛. 관객들의 실제 반응이 크게 오니까 기억에 남아요. 그 외에는 「쿠바의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이 재미있었어

요. 쿠바 청년이랑 결혼한 한국 감독님 얘기여서 '본격 연애 다큐'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봉했었죠. 「탐욕의 제국」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건데 실제 노동자

분들이랑 같이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 개의 문(2 Doors, 2011)  
다큐멘터리 2012.06.21 / 101분  
한국 / 감독 김일란, 홍지유



쿠바의 연인(Cuban boyfriend, 2010) 다큐멘터리, 멜로, 로맨스  
2011.01.13 / 93분 / 한국  
감독 정호현



탐욕의 제국(The Empire of Shame, 2012) 다큐멘터리 2014.03.06  
92분 / 한국 / 감독 홍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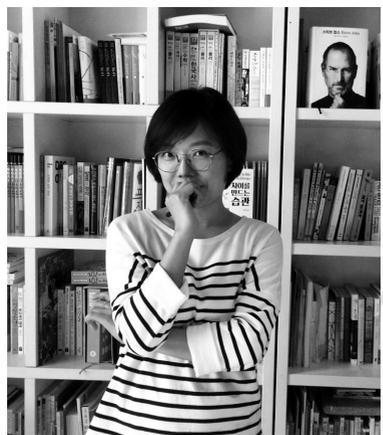
- 저희가 5월 30일에 급식비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해요. 술 한잔하러 오세요.
- 너무 좋아요. 호프할 때 불러 주세요. 그리고 밥 먹으러도 가고 할게요.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북디자이너 구화정님을 만나다

“노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들야학 유미



이번 호에 만날 사람으로 꼽힌 후원인 구화정님은 내게는 노들보다 더 오래된 인연이다. 내가 언니를 만난 건 2003년, 사진이 좋아서 낮에는 알바하고 밤이나 주말엔 사진 배우러 다니는 그야말로 '주경야독' 하던 때였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스튜디오 사진 촬영 수업을 함께 듣고, 그 뒤부터 짝 같이 놀았던 것 같다. 언니는 만났을 때부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는 출판사에 다녔는데 지금은 본인이 디자인사무실을 차려서 일하고 있다. 2003년에 같이 공부한 사진반의 또 다른 멤버 지희 언니와 함께 일한다. 언니들도 나도 마감에 쫓기다 보니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어찌됐건 기쁘게 만났을 사이인 건 분명하다. (앗 설마 나만?)

언제였던가... 안 그래도 바쁜 언니들에게 나는 뻔뻔하게도 후원주점 포스터를 디자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은 언니가 새로 만들었다며 자랑한 명함이 참 예쁘기에, 야학 명함도 이렇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렇게 언니 손을 거친 작업물들이 노들에 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언니들이 탁자와 의자 같은 걸 차에 싣고 와 야학에서 쓰라며 주고 가기도 했다. 그때 받은 바퀴 달린 의자를 내가 한동안 잘 굴리며 썼다. 노들야학, 노들센터, 노들 법인 활동가가 새로 들어오면 언니들은 이들의 명함을 만들어준다. 철없는 동생 모드로 평소엔 별 생각 없이 잘 받기만 하다가 가끔... '나는 언니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암만 생각해 봐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딱히 안 떠오르고... 나란 사람 대체 뭐야... 하다가, 그저 한없이 '고맙습니다'로 결론 맺는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ㅎㅎ

후원인 인터뷰를 핑계로 오랜만에 언니들의 작업실에 놀러가서 놀다 와야겠다는 생각에 들었으니, 4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 4월 초에 만나기로 했다가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4월 20일이 지나자 언니들은 두 개의 영화제 홍보물 작업을 동시에 하느라 '밤샘'의 연속 상태였다. 어렵게 잡은 날짜가 몇 번 미뤄지고 결국 우리는 휴대폰 대화창에서 만났다. 흑흑.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디자이너 구화정이라고 합니다. 단행본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고, 영화제나 행사 홍보물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12년째 해오고 있어요.

노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사진을 찍다 만난 친한 동생이 노들야학 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장애인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친한 동생은 바로바로 『노들바람』의 꽃 '김유미'라는 사람입니다. 하핫!

노들을 후원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옛날엔 장애가 있는 형제나 자식이 있으면 대부분 학교도 안 보내고 집안에 방치했잖아요. 그들이 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가족에게 짐이 되어 힘들어하는 경우를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땐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당장 내 앞에 닥친 일은 아니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거요.

유미가 노들 사람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박경석 교장선생님께서 한 말씀을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그때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땡~ 종소리가 울렸지요. “내가 백인이냐 흑인이 될 순 없지만, 장애인이 될 순 있다”라는 말씀이요. 아, 장애는 한순간의 사고로도 내게 닥칠 수 있는 일이었구나!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나에게 부끄러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CMS 소액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결혼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했으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네요. ^^ 벌써 10년이라니요! 노들과 함

노들에  
바라는 것,  
하고 싶은 말

께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감동을 받았을 때가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이라는 현수막 제작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니!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 종종 현수막 출력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노란들판'으로 연락을 합니다. 과연 내가 전하는 파일이나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될까? 궁금했는데 어눌한 말투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알아듣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결과물도 훌륭하고요! '가능'하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을 받았지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경우가 참 많죠. 서로 일이 급해 이기적인 말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노란들판과 일을 해보면서, 그간 제가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좀 깨진 것 같아요. 이런 반성과 깨달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울 만큼의 소액이지만 후원을 통해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노들이 하는 일들을 봅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애쓰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이들이 저처럼 장애에 대한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들!

2015년 4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 강경완 강광숙 강귀화 강남훈 강문형 강병완 강병희 강복원 강복현 강성운 강소영 강수혜 강영미 강유선 강정자 강현욱 강희관 고경신 고동수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은선 고재현 고정화 고재현 공대식 공명렬 공승룡 공태윤 광노근 광성자 구경민 구세나 구수준 구승기 구정서 구현아 공경혜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윤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운 권혁은 김가경 김가영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숙 김경태 김경혜 김관희 김광국 김광수 김근식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기호 김남수 김대회 김덕 김도경 김도현 김도훈 김동은 김동진 김동호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문주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지 김민호 김민희 김범식 김병오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비호 김상원 김상윤 김상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설민 김성미 김성진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영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욱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욱 김용진 김우경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천 김익현 김장원 김재경 김재양 김재원 김재인 김재환 김재희 김정구 김정민 김정욱 김정하 김정현 김정호 김중윤 김중호 김중환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에 김지은 김지현 김지환 김진규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탄진 김태승 김태우 김태인 김태일 김푸른솔 김학일 김한민 김한솔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치 김형배 김형호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호식 김호진 김홍희 김희정 김희찬 김희현 나선영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민영 남정식 남지현 남효진 노미경 노상경 노상은 노영조 노유리 노현택 노혜련 동근숙 류명욱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마미주 모경훈 문건화 문경희 문명동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영 박경준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다정 박달래 박명숙 박미경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영 박세진 박세호 박소희 박수진 박승하 박시백 박신우 박애경 박여승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은국 박은미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장곤 박장근 박재국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중현 박주연 박주원 박준호 박지영 박진우 박찬수 박찬양 박창숙 박철우 박태민 박태정 박하순 박현민 박현정 박현희 박혜민 박홍석 박희수 반영신 배경원 배덕민 배수자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준영 배진숙 배처녀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백진희 변하연 서기현 서남교 서매순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성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은수 서정록 서정웅 서주형 서호필 석순용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창기 성희옥 송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인범 손주영 손준희 손희경 송기호 송병준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창국 송현정 신복순 신봉준 신석호 신수정 신수정2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원미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하나 신현훈 심귀환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정구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인숙 안정현 안정에 안정은 안종녀 안향미 안희옥 양민화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인숙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순영 엄재균 엄주영 엄주철 여운호 여준민 연금순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종환 오지은 오진아 옥생 우승명 우시우 원재민 원해선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정윤 유창재 유희정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성근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숙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윤 이경자 이경훈1 이경훈2 이경희 이광민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기순 이기훈 이남희 이도건 이동은 이동진 이리나 이은희 이이나 이따림 이미영 이미정 이민규 이범민 이비함 이상림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이수연 이순용 이승민 이승범 이승연 이알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란 이영수 이용길 이우석 이원진 이유미 이유진 이윤옥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 이은정2 이은주 이은지 이장우 이재규





### 후원방법 안내

#### 1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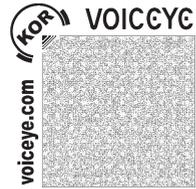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 방식과 직접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재령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정훈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옥  
이준범 이지연 이지영 이지는 이지혜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찬미 이채린 이철우 이태곤 이한호 이해창 이현규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형록 이호연 이호중 이회국 이효정 이홍호 임광열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세라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춘학 임태종 임형주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영숙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경옥 전권세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옥  
정경신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동식 정미란 정민규 정병순 정상엽 정상옥  
정선옥 정송미 정수연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안 정용일 정용훈  
정우준 정운영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은주 정익화 정재훈 정종권 정주연 정지영  
정진수 정진영 정진이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진 정혜림 정혜원 정희덕 조경애  
조미정 조사랑 조성진 조수안 조승근 조아라 조요한 조원일 조원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은현 조자영 조재범 조한라 조향숙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업 좌미경 좌혜경 주기중 주상연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혜롬 진영옥 진영인 차명수 차무영 차순정  
차종원 채이배 천성호 천종민 천진수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미은 최병진  
최병희 최보경 최보미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식 최영은 최우영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익 최인원 최재민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진석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현진 최혜영 최호연 최희태 추경미 표미라 표은혜 표희철 하경남 하금철  
하울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안 한승희 한양재 한정은 한주영  
한지훈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현영철 현정민 현장우 홍권호 홍도순 홍석환 홍성미 홍성호 홍승대 홍순희  
홍영희 홍은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성운 황승미 황재연  
황정희 황진미 황해진 황혜진 황희준

#### 계좌이체 후원인

김정지현 서금석 신동길 오선실 윤종배 강수혜 고명선 구자숙 권대상 김명화 김미선 김  
선심 김용철 김지연 김진순 남완승 류동훈 류승아 박경선 박윤기 박윤기 박현규 사랑의  
후원금 손환목 송영자 신디 안성희 엠알엠글로벌 윤길중 윤지형 이두혁 이수영 이한진  
이현숙 정옥순 조현민 차명수 최상희 티에이치엘 허병권 황미향 황재수  
희망열차(김낙현)

#### <노들로 들어온 선물>

1월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꽃감 말랑이, 3월 | **웅진주니어** 한글교재와 그림책 여러 권  
콩 친구들 사무금융연맹 그림팬, 가방 등 멋진 선물꾸러미  
스파인2000 응급의약품 모음

#### \*노들20주년 후원물품 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홍은전 지음, 까치수업 펴냄, 10,000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잡곡(10,000원) / 20주년 “노들” 티셔츠(15,000원)  
매실청(900ml,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  
양말(3,000원) / 신문지 재생연필(10자루, 3,000원)



팟캐스트 방송 ‘듣거나 말거나 노들바람’이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로 이름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꾸려갑니다. 노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장  
애인운동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장애  
를 아는가’ 기대해주세요. ^^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쿵!  
머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한 그대는 택배!  
광화문? 훗,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  
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문의 02-469-9101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ncil.or.kr  
이메일 nodl@hanmail.net 트위터 @nodcil  
전화 02)766-9103 / 010-5766-9103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ttp://www.420pan.or.kr/  
이메일 centerpan420pan.or.kr  
전화 02-6082-6420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집에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무작정 서울까지 걷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 바로 알리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 발달장애인 자식을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며, 장애인도 당신 옆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 군도』에서  
이진섭 저, 후마니타스, 2015

